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3호 【주계 제25346호】 주체105(2016)년 7월 21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끄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리아아랍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외교관계설정후 지난 50년간 우리 두 나라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강화발전시켜왔습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들여 마련하시고 가꾸어주신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우리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도 계속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적대세력들의 침략과 테로를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친선적인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다시한번 굳은 련대성을 보내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체105(2016)년 7월 20일 평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1966년 7월 25일 수리아아랍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된 때로부터 50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수리아아랍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사업에서 계속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우리 두 나라 지도부의 공통의 노력에 의하여 공식외교관계가 설정된 때로부터 쌍무친선협조관계는 여러 분야에 걸쳐 매우 만족스럽게 발전되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50년간 우리 두 나라가 겪은 국제정세파동과 커다란 도전들이 우리 두 나라 관계의 공고성을 검증하는 요인들로 작용하였으나 공통의 원칙을 견지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가 이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정당성을 더욱 립증하고 세계의 평화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나는 이 뜻깊은 계기에 즈음하여 각하께 다시한번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력사적인 친선의 뉴대가 호상존중과 정등, 전인류의 리익수호를 중시하는 나라들사이의 협조와 련대성의 원칙에 부합되게 계속 강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2016년 7월 18일 디마스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사상리론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자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와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에서 제시된 사상리론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2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혁명사적부문, 당일군양성기관 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작들에서 밝히신 주체의 철학사상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한 5건의 론문이 발표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완벽한 혁명학설로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박사, 부교수 박명남이 토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여 자주시대의 완성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토론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비범한 예지와 뛰여난 철학적사색으로 인류철학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철학을 사람중심의 독창적인 철학사상으로 완전무결하게 정립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을 인간해방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완벽한 학설로 빛을 뿌리게 하여주시였다.

주체철학은 선행철학과는 달리 사람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 세계의 주인으로 내세웠으며 사회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세계가 지배되고 개조발전된다는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히였다.

이와 함께 사람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 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인간의 운명개척의 근본원리와 방도들을 새롭게 명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주체사상을 시대와 력사발전이 새롭게 제기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완벽한 혁명학설로 발전완성시키시였다.

주체사상만이 력사의 흐름속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끝바른 승리의 길로 향도하는 완벽한 혁명학설로 된다는것을 확증하시였다.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혁명적당의 사상교양은 반드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유일사상교양으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될 때에만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주체로 된다는 사상을 밝히시였다.

또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는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사회정치적생명체이며 여기에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원리가 작용하게 된다는 사상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철학연구의 목적과 과학적방도를 새롭게 밝힌 기념비적로작》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김형직사범대학 교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 류순찬은 다음과 같이 론증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주체철학을 인민대중중심의 철학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인류의 철학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또한 인민대중중심의 위대한 철학사상인 주체철학의 독창성과 우월성이 힘있게 파시되고 그 순결성이 고수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토론자는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철학연구의 목적과 과학적방도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여 주체철학을 인류철학발전의 최고경지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부교수 김광일은 《주체철학을 독창적인 철학으로 해설전개해나갈수 있는 불멸의 지침을 마련한 고전적로작》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주체철학을 독창적인 철학으로 해설전개해나갈수 있는 불멸의 지침을 마련한 로작들로 되는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론증하였다.

그것은 주체철학의 기본원리들에 대한 해설을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히는데로 지향시켜야 주체철학이 철학적파제에서부터 선행한 철학과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철학, 자기의 고유한 원리들로 일관된 독창적인 철학이라는것을 론증할수 있기때문이다.

물질세계의 본질과 그 운동의 일반적합법칙성을 해명하는것을 중요한 철학적파제로 제기한 선행철학과는 달리 주체철학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하는것을 자기의 철학적파제로 내세웠다.

주체철학은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문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며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을 개조하는 인간의 사회적운동에 의해서만 세계가 지배되고 개조발전되여나간다는 사회력사원리를 독창적으로 밝히였다.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람의 운동인 사회적운동에는 목적의식적으로, 주동적으로 활동하는 주체가 있다.

주체철학은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적운동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참답게 체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운동이며 의식적인 혁명실천에 철저히 복무하는 실천적무기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구현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주체철학이 가장 과학적인 혁명의 근본원리와 정치의 원리적기초를 직접적으로 밝혀주는 철학이라는것을 명시하신것이다.

주체철학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혀주고있다.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의 가장 높은 단계인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에 의하여 추동되어나간다.

주체철학은 또한 사회발전을 옳바른 길로 이끄는 정치의 주인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라는 원리, 사랑과 믿음으로 광범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정치의 근본원리를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가자》라는 제목으로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원 부교수 김명희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상전의 돌바람을 일으켜나갈 때 조국땅우에는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과 탕문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의 체제와 내용, 사상리론과 과업들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혁명적학습열풍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환히 꿰들고 끝까지 관철하며 모든 사업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해나가도록 하는데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며 혁명식정치사상사업방법을 적극적으로, 능숙하게 활용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위대성에 진심으로 매혹되고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절사관철하는 불굴의 투사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지는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켜야 한다.

천만군민을 억척불변의 신념과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로동당의 붉은 병수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소유한 도덕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

당의 의도에 맞게 정치사상공세를 침입식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중심고리, 요점들을 바로 찾아쥐며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그 누구보다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이 높은 우리 혁명의 정수분자가 되여야 하며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을 자기 집일처럼 환히 꿰들고 대중속에 심어주는 능숙한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야 한다.

토론자들과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의 사상리론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절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자기들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적인 전법으로 미제를 타승하신 탁월한 군사전략가

대 전 해 방 전 투 의 나 날 을 더 듬 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3년간의 날과 달들이 우리의 눈앞에 다시금 새겨진다.

그중에서도 대전해방전투는 우리 인민군대의 강대성과 미제의 취약성을 뚜렷이 보여준 통쾌한 전투로 력사에 남아있다.

우리 인민군대를 당당한 승자로 되게 하고 미제침략군을 여지없는 패자로 되게 한것은 백전백승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전략사상과 전법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세계전쟁사에 포위전의 모범으로, 군사적기적으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대전해방전투는 오늘도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지략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되새겨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소했던 우리 인민군대가 강대성을 자랑하던 미제의 지만한 코대를 이렇게 보기 좋게 꺾어버렸는가를 세계면전에서 똑똑히 보여준 조국해방전쟁시의 자랑스러운 속도이고 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인 대전해방전투.

얼마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은 우리는 대전지역전투장면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보여주는 전경화앞에 섰다. 우리의 눈앞에서 66년전의 대전해방전투가 재현되기 시작하였다.

대전에서 서남쪽으로 멀리가량 떨어진 어느 한 산봉우리에 우리가 서 있는듯싶은데 대전해방전투의 시작과 끝에 이르는 전과정이 넓은 폭으로 전개되고있었다.

불구름이 타래쳐오르는 대전시가, 높이 15m, 둘레길이 132m, 화폭면적 1 980㎡에 등장인물 2만명을 담은 전경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10여일동안에 조직진행된 대전로위전장면이 펼쳐졌다.

실감있게 형상된 전경화를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이 안겨왔고 최고사령판통지의 작전적의도를 하나하나 절사판철해가는 인민군부대들의 음직임이 방불하게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전에 적들의 무분별한 기도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놈들의 아성인 대전의 적들을 완전히 포위섬멸할 작전안을 구상하고계시였다.

이로부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산악이 많고 기동로가 제한되어있는 우리나라 지형조건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독창적인 포위전법을 내놓으시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력에 의한 포위작전은 대체로 정면에서 공격하는 부대들과 적의 망익측에서 타격하는 부대들이 일정한 종심에서 합치는 타격형식과 포위의 외부전선과 내부전선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였다.

이것은 세계전쟁사에서 굳어진 기존공식이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법은 산이 많고 기동로가 심히 제한되여있으며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과 싸워야 하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은밀성과 불의성, 신속성과 정확치밀에서의 대담성과 결단성을 전제로 하는 우회전은 경련한 무장을 갖추고 산발을 타고 적의 익측과 후방으로 에돌아가 감쪽같이 진행할수 있는 전법이였다. 때문에 기동로의 제한으로 인한 구속이나 력량과 기재부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적의 뢰로를 차단하여 적을 일거에 포위섬멸할수 있으며 적의 익측과 배후에 불의에 나타나 타격함으로써 포위된 적을 보다 쉽게, 보다 빨리 와해소멸할수 있게 하는 독특한 전법이였다.

주체39(1950)년 7월 중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전해방작전의 승리를 위한 금강강행도하를 지휘하시였다.

당시 금강도하문제는 전반적전선작전에서는 물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대전포위작전의 성패여부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지휘관들의 생각은 복잡하였다.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금강을 단숨에 극복할것인가.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 천선주타격집단부대들은 금강가까이로 전진해오고있었다.

지휘관들이 안타까움에 모대기고있을 때 작전도를 펼치시고 직접을 료해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의 약점을 예리하게 간파하시고 적들이 전혀 관심밖에 두었던 곳에서 감쪽같이 도하할 묘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즉시 도하작전이 진행되였다.

아군은 먼저 금강남안의 공주방향으로 진격하는척 하면서 적의 주의를 그곳으로 쏠리게 하고 일부 력량은 강력한 포화력의 지원하에 그 방익측으로 도하하여 놈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런 다음 30리 넓은 지역에서 일시에 강을 건너섰다.

인민군련합부대들의 노도같은 진격속에 미제가 《최종방어선》, 《불퇴의 선》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금강의 방어선이 단 이틀사이에 붕괴은 담벽처럼 무너졌으며 뒤이어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던 주체적인 포위작전의 서막이 열렸다.

대전제선에서 전국을 전환시킬 어리석은 야망밑에 미제의 장성들이 펼쳤던 《풍세》들이 좌절과 실패를 면치 못하여 결전장은 대전으로 가까와졌다.

대전을 《림시수도》로 선포하고 여기에 모여들었던 미제침략군 제24보병사단과 괴뢰군패잔병들은 발악적으로 저항해나섰다.

말그대로 대전지역은 적아간의 치렬한 결전장으로 되였다.

아군련합부대들은 대전에 적들을 몰아넣고 포위망을 조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 대구서남쪽에 진출하여 적의 뢰각과 증원부대를 막아야 할 부대가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예정된 계선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였다. 시간을 더 지체하면 대전포위작전이 늦어지고 계속 북쪽으로 기동하는 적증원부대들이 대전에서 미24보병사단과 합세할수 있었다.

있을수 있는 정황을 예견하시고 청주계선에서 치렬한 공방전을 벌리고있는 아군련합부대들의 진출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이미 대전서남쪽 론산까지 진출한 련합부대를 돌려 대전으로 공격시키며 그중 일부 부대를 대전 동남방향으로 신속히 우회시켜 대전 남쪽과 동남쪽의 도로를 차단하여 대전에 대한 포위를 실현할데 대한 대담한 조치를 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또 생각해낼수도 없는 신묘한 작전전술적묘책이였다.

아무도 판심을 두고있지 않는 대전서남부의 론산계선에서 대전포위의 고리를 찾으신 기발한 착상!

이러한 작전방안은 오직 항일대전시기에 기민한 우회전으로 적을 소멸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명활한 전술이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캄캄한 밤에 해빛을 받은듯 앞이 탁 트이였다.

그들은 청주계선의 적방어를 뚫으려고만 하였지 호남방향으로 진격하고있는 론산의 18보병련대를 돌려세워 대전포위의 빈 공간을 메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이의 카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대전동남쪽으로 우회할데 대한 명령을 받은 18보병련대의 전투원들은 하루밤사이에 험한 산발을 타고 100여리를 은밀히 행군하여 적의 뢰로와 증원부대를 제때에 막아낼수 있게 되였다.

주체39(1950)년 7월 20일 새벽 5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전해방을 위한 총공격명령을 내리시였다.

포화력의 엄호밑에 일제히 공격으로 넘어간 우리의 인민군용사들은 순식간에 적의 방어진지들을 돌파하였고 맹렬한 시가전을 벌리면서 적들을 무자비하게 소멸하였다.

인민군부대들의 드센 공격앞에 넋을 잃은 적들은 대전남쪽과 동남쪽 도로를 따라 퇴각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적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죽음밖에 없었다.

기묘하고도 령활한 우회전법으로 적의 뢰로를 차단하고있던 인민군용사들은 적들에 대한 마지막타격전으로 호된 징벌을 안기였던것이다.

공격개시 7시간만에 대전해방작전은 완전한 승리로 결속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전략과 전술앞에 전쟁사상 패배를 몰랐다던 악명높은 미제의 정예무력이 처참하기 그지없는 패배를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사단장 먼은 자기 한몸마저도 구원할수 없는 신세에 빠져들게 되였다.

대전해방전투를 실패한 팡정처럼 보여주는 화폭은 끝났으나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날념을 못했다.

우리의 가슴에는 통쾌감이 가득찼고 긍지와 자부심이 넘쳤다.

돌이켜보자, 세계력사에서 미제를 그렇듯 호되게 후려갈긴 전법과 전술이 있었던가.

우리에게는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미군장교 페렌바크가 《실록 한국전쟁》에 쓴 글줄이 떠올랐다.

《그들(인민군대를 말함)은 방어군(미24사)을 정면으로 공격하여 그 자유를 묶고 후퇴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한편 우회 또는 침투방법으로 방어군의 후방으로 진출하여 그 뢰로를 차단하는 그런 전술에 의거했다.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떤이건 또는 다른 지휘판이건 후방의 상황을 파악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였다. …》

세계 혁명적인민들도 조선의 승리를 두고 이렇게 칭송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진짜기적, 진짜신화이다.》

《이것은 현세기의 비범한 군사천재가 이시며 천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의 탁월한 군사전략사상이 가져온 기적이였다.》

진정 대전해방전투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의 정예무력을 전략전술적우세로 뚫아 못하게 포위하고 철저히 소멸함으로써 미제는 사상정신적으로는 더 말할것도 없고 전략전술적으로도 상대가 안되는 렬악한 존재임을 세계의 면전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는 여지없이 꺾어졌으며 그 《강대성》의 신화는 력사의 오물통에 구겨박혔다.

대전해방전투에서의 빛나는 승리!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우리 수령님의 빛나는 예지와 뛰여난 령군술이 안아온 눈부신 전과가 어찌 대전해방전투뿐이랴. 참으로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법은 미제의 살인장군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고 기성의 군사지식과 공식으로써는 절대로 풀이할수 없는 주체적이고 독창적이며 천재적인것이였다.

그랬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장을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필승불패이다.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전두에서 이끄시기에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있으며 조선인민과 영웅적조선인민군은 기어이 미제의 멸망사를 뚜렷하게 써줄것이다.

본사기자 전 광 남

대전해방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독창적인 포병전법을 창조하시여

정전담판장에 나타난 승용차

포는 오랜 기간 여러가지 무기들가운데서 가장 위력한 무기의 하나로 공인되여왔다.

전투에서의 승패는 포를 어떻게 리용하며 그 위력을 얼마나 발휘하게 하는가에 크게 달려있었으므로 군사가들속에서 포를 두고 《지상전투무기의 정화》요, 《전쟁의 신》이요 하는 말들까지 나오게 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도 포는 군사작전수행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나라의 지형적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포병전법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군사작전수행에 널리 리용하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시다.》

전선에서 치렬한 적전이 벌어지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지휘관을 만나시여 포를 고지에 올려놓고 적을 족쳐야 한다고, 그러므로 시급히 포를 전연에 내가도록 하라고 밝혀주시였다.

현대전에서 포화력의 리용은 매우 중요시되여왔으나 지난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개활지대에서의 포병의 집중리용에 대하여 강조되였을뿐이였다.

산악지대에서의 포병행동을 조직할 경우에도 그것을 박격포를 비롯한 곡사포에 국한시키고있었다.

언제나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전투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곡사포를 깊은 종심으로부터 끌어내여 전연에 바싹 접근시켜 기동성있게 포진지를 옮기면서 적을 타격하며 우리 나라의 지형상특성에 맞게 직사포를 고지에 올려놓아 포화력의 위력을 남김없이 나타낼수 있게 하시였다.

하여 전선에서는 대대적으로 증강된 여러가지 곡사포와 직사포로 화력밀도가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적들에게 집중적인 포화력으로 섬멸적인 강타를 먹일수 있게 되였다.

우리 포병의 전투적위력이 더욱 강화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0(1951)년 9월 어느날 몸소 최전선에 나가시여 1211고지방위자들에게 강행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때부터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211고지방위자들에게 우리는 어디까지나 산이 많고 평지가 적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조선식포화력조직을 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각종 포들을 결정적으로 전연에 접근배치하며 직사포들을 고지에 더 많이 끌어올려다 배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것은 현대전쟁사에도 없고 어느 나라 병서에도 없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포를 고지에 끌어올려다 배치하고 포화력밀도를 잘 조성함으로써 적의 포를 우리 포로 제압하며 아군보병들의 활동을 포화력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전연방어부대들에서는 직사포를 고지에 끌어올리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졌다.

협준한 산악에 육중한 포들을 끌어올리는 일은 헐치 않았다.

그러나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것을 실천으로 체득한 인민군용사들은 포연탄우를 헤치며 수많은 직사포들을 고지와 릉선에 끌어올렸으며 포진지들을 정도화하였다.

1211고지를 비롯하여 을밀무명의 수많은 조국의 고지들에서 우리 영웅적인민군용사들이 적들과 적전을 벌릴 때마다 우리의 포병화력은 적들의 방어전연진지들과 공격시렵은 물론 놈들의 지휘부, 탄약창고, 포진지 등에 이르기까지 멍중란을 퍼부어 박살내고 놈들에게 저들되는 참패를 안기였다.

이 모든 빛나는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포병전투방법이 가져다준 통쾌한 결실이였다.

본사기자 김 철 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진행된 정전담판은 총과 대포로써 싸우는 전투에 못지 않게 복잡하고 어려운 하나의 전쟁이나 다름이 없었으며 조국과 인민의 존엄, 민족의 영예를 지키기 위한 미제와의 심각한 정치적대결전이였다.

이러한 대결장에서는 사리정연한 말이나 기발한 묘책이 총과 대포에 못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한다.

미제의 음흉한 기도를 분쇄하고 거만한 코대를 짜어놓은 승용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변화되는 군사정치정세와 적들의 약점, 음흉한 기도를 앞질러보시고 탁월한 지략과 기묘한 전략전술, 독창적인 전법으로 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주체40(1951)년 9월 중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전담판 우리측 수석대표를 불가까이에 불러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담판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우리측 수석대표는 눈앞이 환히 열리는것 같았다.

당시 적들은 황당하게도 해군과 공군의 《우세》에 대한 《보상》으로 적아가 대치하고있던 계선보다 수십km나 북쪽으로 들어다 군사분계선을 정하자는 날강도적인 주장을 들고나왔다. 뻔뻔스러운 강도의 궤변이 통하지 않게 되자 적들은 정전담판에 의도적으로 장애를 조성하고있었다. …

오그랑수를 쓰며 담판을 질질 끄는 적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실수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철하고 사리정연한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길수록 수석대표에게는 《영예로운 정전》을 꿈꾸는 미국놈들의 거만한 코대를 단매에 분질러놓을 자신심이 확고해졌다.

신심에 넘쳐있는 그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부터 정전담판장에 하고 다닐 승용차를 다른것으로 바꾸도록 해주시였다.

수석대표의 놀라움은 매우 너라고, 동무가 이 차를 타고가면 흰기를 들고 정전담판에 나온 적측 수석대표와 수원놈들은 패배자로서의 제놈들의 수치감을 느끼며 머리를 들지 못할것이라고, 반대로 동무들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무력침범자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린 승리자라는 자부심을 안고 존엄있고 정정당당하게 정전담판장에 나설수 있다고 하시며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것이였다.

그제서야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깨달은 그는 《알았습니다.》하고 힘차게 대답을 올리였다.

이 순간부터 그것은 단순한 승용차가 아니였다.

군사기술적《우세》라는 괴대망상에 환장한 나머지 기고만장하여 담판장으로 나오던 적들은 우리측 수석대표의 승용차를 보는 순간 맹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죽는소리를 쳤다.

놈들의 몰골을 보며 날강도 미제의 그 무슨 《우세》에 치욕을 주고 적들을 굴복들게 하신 위대한 령장의 탁월한 군사외교술에 대한 격찬을 금치 못하는 우리측 대표들,

그들은 든든한 담력과 배짱을 안고 승리가 약속되여있는 담판장으로 보무당당히 들어서군 하였다.

본사기자 한 영 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산 토 메 프 린 시 페 민 주 주 의 공 화 국 대 통 령 당 선 자 에 게 축 전 을 보 내 였 다

산 토 메

산토메 프린시페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당선자

에 바 리 스 뚜 까 르 발 류 각 하

나는 당신이 산토메 프린시페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의 중책을 지니게 된것과 관련하여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사회경제적발전과 귀국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7월 19일 평 양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를 소집함에 대하여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가 주체105(2016)년 10월 하순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게 된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직업총동맹 제6차대회이후 직업동맹이 당의 위업에 충직한 대중적정치조직으로 더욱 강화되여온 35년의 발전로정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 총돌격전에서 직맹조직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한 방침에 대하여 토의하게 된다.

뜻깊은 올해를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가 벌어지고있는 벅찬 시기에 열리는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는 전동맹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발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가 장 위 력 한 혁 명 의 주 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비할바없이 강화된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 강력한 총대를 틀어쥔 인민은 가장 위력한 혁명의 주체로 되는것이며 이런 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혁명은 강위력한 주체적력량에 의하여 전진하며 승리한다. 강력한 주체를 가진 혁명은 필승불패이지만 그렇지 못한 혁명은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하는 법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이 자주적주체로 등장하여 그들자신이 수행하는 혁명위업이다. 우리의 사회주의강국건설력사에 아로새겨진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결코 그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하여 얻어진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조력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우리 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인민대중을 강유력한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고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대한 사회주의성새를 일떠세웠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때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가장 위력한 혁명의 주체는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이다.

혁명의 주체의 위력은 사상의지적 단결의 위력이다.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근본담보이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력사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혁명의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은 수행의 혁명사상으로 의식화, 조직화될 때만이 혁명의 직접적담당자로서 뚜렷한 투쟁목적과 강한 정신력을 지니고 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나갈수 있다.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이 발휘하는 힘은 무한대이다.

일찌기 자주의 기치밑에 혁명의 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단결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시고 통일단결의 고귀한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 수행관을 근본핵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의 본질과 그 형성의 합법칙성, 그것을 풍고발전시키기 위한 방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수행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시였다. 특히 선군시대에 우리 혁명의 주체가 비상히 강화되고 사회주의수호전과 부강조국건설에서 련전련승의 기적, 대비약, 대혁신이 이룩된것은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일심단결,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천백배로 높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혁명의 주체의 위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사상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밑에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천만군민이 령도자와 사상과 뜻을 함께 하는 우리의 혼연일체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다. 위대한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이 가장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고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가장 위력한 혁명의 주체는 강력한 총대를 틀어쥔 인민이다.

혁명에서 기본은 총대이다.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전을 동반하는 혁명의 길에서 총대를 떠나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무적의 총대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승리의 상징이다. 약육강식을 생존법칙으로 삼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침략과 간섭, 강권과 전횡으로 하여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권과 생존권을 짓밟히 유린당하고 곡절을 겪고있는것이 오늘의 세계이다. 력사와 현실은 무적필승의 혁명군대와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을 가진 인민만이 혁명의 주체로서 자기의 앞길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실 때 강력한 총대가 마련되고 혁명의 주체의 위력이 백배해진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정립체계화하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우시였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국방병진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시여 자위적국방공업의 토대를 억척같이 다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혁명의 승패와 진퇴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백승을 떨칠수 있었다.

선군은 우리 혁명의 만능의 보검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원쑤들을 전률시키는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추고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을 믿음직하게 보위할뿐아니라 침략의 본거지를 초토화해버릴수 있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그리고 우리 당이 새롭게 제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구현하는 길에서 주체조선의 국방공업은 그 어떤 현대적인 무기도 척척 만들어내는 강위력한 혁명의 병기창으로 전변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광기어린 대조선압살책동을 파탄하 짓부시며 주체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특대사변들이 다제단으로 일어나고있는것은 총대의 위력이자 곧 혁명의 주체의 위력이며 강력한 총대를 틀어쥔 인민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강위력한 혁명의 주체가 있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조 학 철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자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대동강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대동강식료공장은 인재가 많은 단위라고 할수 있다.

여러명의 박사와 석사가 있고 종업원수의 거의 절반이 기사, 기수들이며 50여명의 종업원들이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있다.

이 사실을 놓고도 공장의 과학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에 과학기술학습기풍을 세워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게 함으로써 지식과 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서 초급당위원회가 무엇보다 중시한것이 있다.

과학기술학습열풍이다.

그러면 초급당위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가를 보자.

우선 일터를 종업원들의 과학기술학습열의를 불러일으키는 학습마당, 토론마당으로 전환시킨것이다. 말하자면 학습분위기를 잘 조성한것이다.

과학기술소개관운영을 보다 실속있게 짜고든 사실을 놓고도 알수 있다.

공장에서는 이미전부터 소개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최신 과학기술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소개하는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응당한 실효를 나타내지 못했다.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일부 종업원들이나 리용하는 정도였다.

초급당위원장 김철수동무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배인 조형철, 기사장 최현실동무들과 토론을 거듭하는 과정에 하나의 방법을 찾아쥐게 되였다. 그것이 바로 과학기술소개관에 구획을 지어 물음판을 따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종업원들 스스로가 써놓도록 하는 방법이였다.

이 방법을 적용하니 실효가 대단했다.

언제인가 원료작업반에서 원료의 수분에 따라 정선공정에서 눈껍질분리률을 정확히 보장하는 기술적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온 종업원들의 관심사가 되도록 물음판에 제시하고 모두가 그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자 종업원들속에서는 제시된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토론과 론쟁이 열띠게 벌어지게 되였다. 그 과정에 발효작업반의 어느 한 종업원이 제일먼저 그에 대한 좋은 안을 제기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 종업원의 착상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온 공장에 과학기술학습열풍을 불러오는데서 귀중한 싹으로 보고 그를 높이 평가하고 적극 내세워주었다.

이것을 계기로 물음판에 새 문제가 제시될 때마다 종업원들은 먼저 그 답을 찾겠다는 승벽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토론과 론쟁의 마당에도 적극 뛰여들군 하였다. 말그대로 온 공장이 학습마당, 토론마당으로 전환되였다.

그 과정에 종업원들속에서는 공기식원료이송 및 먼지분리장치를 비롯한 현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또한 종업원들의 높아진 열의에 맞게 그들을 선진과학기술의 소유자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여기서 중시한것이 과학기술보급실운영사업이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우선 과학기술보급실리용에서 앞장선 대상들을 선정하여 공장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최신과학기술의 발전동향과 추세, 대학과정안에 따라 진행되는 원격강의에 대한 소개, 국가망을 통한 자료열람방법 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그날 종업원들이 큰 충격을 받은것은 콤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며 해설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들과 똑같이 공장에 들어온 로동자이며 원격교육대학 학생이라는데 있었다. 종업원들은 지난 시기 시간이 없다는 구실로 선진과학기술을 배우는것을 소홀히 해온 자신들을 깊이 돌이켜보았다.

날이 갈에 따라 과학기술보급실은 선진과학기술을 배우려는 열망으로 충만된 종업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맞게 보급실운영방법도 개선하도록 하였다.

해당 출연자의 강의내용을 록음하여 편집함으로써 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것을 놓고도 말할수 있다. 물론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된것은 아니였다. 과학기술에 대한 빠른 인식을 주기 위해 종업원들에게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강의를 진행하였었다. 하지만 빈구석이 있었다. 일부 지식수준이 어린 종업원들이 강의내용을 충분히 리해하지 못하거나 교대 등으로 빠진 성원들이 강의를 받자면 다시 재강의를 조직해야 하였다.

그렇게 하자면 기술자 한명을 자주 자기 사업에서 떼내야 하였다. 그리고 생산이 련속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학습시간을 따로 낼 형편도 못되였던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급당일군은 사색을 많이 하였다. 기사장이 해당 강사의 강의를 함께 록음하여 편집하자고 하였을 때 그는 그 안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그 실효는 컸다.

강의에 참가하지 못한 종업원들은 아무때나 과학기술보급실에 찾아와 다매체편집물을 통하여 해당한 강의를 받으며 지식을 공고히 할수 있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또한 보급실운영시간도 합리적으로 짜고들어 보급실리용률을 최대로 높이도록 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을 리용하는 과정에 종업원들은 지식경제시대의 높은 요구에 자신들을 비추어보며 공장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들로 더욱 철저히 준비해나갔다.

말그대로 과학기술보급실은 공장의 《대학》이였다.

초급당위원회가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고 힘있게 내밀어온 결과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공장은 여러차례 전국과학기술축전과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들에서 우승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러 제품들이 12월15일품질메달을 받았으며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해마다 선군봉화상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우승기를 받는 영예도 지니였다.

일터를 하나의 학습마당, 토론마당으로, 공장을 선진과학기술을 배우는 교정으로!

이것이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안아온 근본비결이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당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최근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한 사상교양을 과학연구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높은 실적을 내고있는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이 주목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전반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첨단돌파의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여야 합니다.》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이 평양자라공장의 현대화를 실현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제작소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들을 공장으로 파견하였다. 공장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기 위해서였다. 예견했던것보다 조건은 더 어려웠고 일감은 방대하였다. 새 양식장건설, 설비현대화실현, 전반적생산공정에 대한 통합생산체계구축…

제작소로 돌아온 과학자들의 인상은 밝지 못했다. 풀고나가야 할 첨단과학의 요새가 헐치 않았기때문이였다.

초급당위원장 김남진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그들로 말하면 과학기술실력이 높은 인재들이였다.

그런 쟁쟁한 인재들이 왜 신심이 없어하는가.

초급당일군은 소장 류성은동무와 함께 그 원인을 그들의 실력에 앞서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찾았다.

그들이 평양자라공장에 다녀왔지만 그곳에 깃든 당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이를 계기로 초급당위원회는 과학자들속에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뼈속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과학자들과 함께 다시 공장으로 갔다.

평양자라공장에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제작소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공장에 깃든 령도업적을 정대로 쪼아박듯 가슴마다에 새겨넣었다. 또한 우리 나라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일떠선 평양메기공장을 비롯하여 현대화에서 앞장선 단위들도 돌아보았다.

그 과정을 통하여 과학자들의 정신력이 비상히 앙양되였다. 그들은 신심에 넘쳐 전투목표를 다시 세웠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대로 공장을 우리 인민들이 실지로 덕을 보는 공장, 우리 나라 양식의 본보기단위로 만드는데 적극 기여하자!

이런 의지를 안고 그들은 철야전투에 진입하였다.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새로운 무인먹이운반공급기를 제작하는 연구집단에서 실패가 련속 뒤따랐다. 그때마다 책임일군들은 현장에서 전투를 벌리는 과학자들속에 들어가 111호제작소 과학자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하여 힘차게 내달려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분발하도록 고무해주었다.

실장들인 왕철종, 한무광, 연구사들인 김영길, 정승혁동무를 비롯한 젊고 재능있는 청년과학자들은 군인건설자들과 다른 연구소과학자들과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두뇌전, 실력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무인먹이운반공급기를 훌륭히 제작완성하였다.

그리하여 평양자라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이뿐이 아니다. 제작소과학자, 기술자들은 청년운동사적관과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훌륭히 해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값높은 치하를 받아안았다.

그 모든 성과들은 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가슴마다에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실력의 강자들이 안아온 알찬 열매였다.

그렇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뼈속깊이 정대로 쪼아박은 주체조선의 과학자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연구사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보장에 큰 힘을

배천군당위원회 일군들

배천군당 일군들이 군에 있는 한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며 그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할수 있도록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몇해전 어느날 이 연구집단의 실태를 알게 된 군당책임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이 연구집단이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연구사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이 원만하지 못한데 있었던것이다.

군당책임일군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군급기관의 일군들과 마주앉아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가 부족되는 실험기구들을 군이 맡아 보장해주자는 안을 내놓자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그럴만도 하였다. 이 연구집단으로 말하면 군에 소속된 단위가 아니였던것이다. 게다가 군에서 벌려놓은 일도 많아 거기에도 자금을 미처 대지 못하고있는 형편이였던것이다.

하지만 군당책임일군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그는 일군들에게 호소하였다.

과학기술사업을 도와주는데서는 내일내일이 있을수 없다. 그들의 과학연구성과는 곧 우리 군의 과학농사의 성과로 이어진다는것을 명심하자. 군이 허리띠를 더 조이면서라도 연구사들을 위해 자금을 아끼지 말자.

일군들을 이렇게 각성시킨 군당책임일군은 자신이 앞채를 메고 이 사업에 나섰다.

그는 군당일군들을 발동하여 실험기구보장대책을 세우는 한편 자신이 긴급히 해결하여야 할 실험기구들을 가져오기 위하여 먼길을 다녀왔다. 이 과정에 수십점의 실험기구들이 빠른 시일안에 해결되였다.

그후에도 군당책임일군은 실험설비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할수 있는 대책까지 세워주어 연구사들이 연구사업에 전심할수 있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군급기관 일군들은 물론 협동농장일군들도 연구사들에 대한 관점이 새로와졌으며 그들을 도와주는 사업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그곳에 과학기술보급실이 꾸려졌을 때에도 여러대의 콤퓨터를 보내주고 빛섬유케블공사도 도와주었다.

이뿐이 아니다. 과학자정양소를 개건할 때에는 세멘트, 모래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제때에 운반하도록 도와주고 정양소가 훌륭히 꾸려졌을 때에는 갖가지 후방물자들도 보내주어 연구사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연구집단에 대한 군안의 일군들의 관심이 높아갈수록 군당위원회에서는 연구사들이 아무러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도록 그들의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연구사들을 위해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건설해주도록 하고 땔감문제, 먹는물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으며 후방물자도 제일먼저 공급하는 체계를 세워주었다.

이런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연구집단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연구성과를 단몇해사이에 이룩하게 되였다.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과학기술축전에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출품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은것을 비롯하여 훌륭한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군에 있는 연구사들만이 아니다.

지금 배천군으로 찾아오는 여러 농업과학연구사들이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올리고 군의 농업생산에 큰 도움을 주고있는것도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는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이처럼 배천군당위원회 사업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보장문제는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정치사업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장철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원산수산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원산수산사업소의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일지를 보면 주목되는 점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 기풍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종전같으면 기사장의 방에서, 작업현장에서 열리군 하던 기술협의회들이 과학기술보급실로 장소를 바꾼것이다.

모임장소가 바뀌여진데는 사연이 있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은지 여러달이 지난 어느날 며칠간의 운영실태를 료해하던 초급당일군은 하나의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전날까지도 과학기술보급실을 뻔질나게 찾군 하던 선단장들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의 발걸음이 뜸해졌던것이다. 리유인즉 생산도 바쁘고 또 새로운 어로방법을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날째 사업소적으로, 작업반, 선단별로 협의회를 하다나니 과학기술보급실을 찾을 시간이 없었다는것이였다.

협의회들에서 해결방도를 찾지 못하군 하는 사실을 놓고 초급당일군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은데 그치고 실지 선진과학기술의 보급거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방법론을 탐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갈마들었다.

이러한 교훈에 기초하여 초급당위원회는 과학기술전당과 수산성을 비롯한 해당 부문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과학기술보급실의 자료기지들을 더욱 원만히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면밀하게 세워나갔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 과학기술보급사업에 대한 관점을 바로세워주며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모든 기술협의회를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진행할것을 발기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열린 새로운 어로방법도입을 위한 각종 기술협의회들의 실효는 대단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찾지 못했던 해결방도들을 과학기술보급실리용과정에 찾게 되였다. 지난 시기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깊은바다에서의 게드레에 의한 게잡이방법의 완성이라는 기술혁신성과도 거두게 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기술협의회들이 자주 진행될수록 사업소의 과학기술발전에서는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이 과정에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는 크든작든 생산을 높이고 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토의하는 협의회는 의례히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진행하는것이 판에 박힌 일이 되였다.

바뀌여진 모임장소.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옳은 방법론을 적극 탐구하여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의 실효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는 원산수산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참신한 사업기풍을 엿보게 된다.

본사기자 한영철

새로운 공작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구성공작기계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이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200일전투 첫달목표를 수행한 기세로 이달에 들어와서도 매일 계획을 1.1배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200일전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일군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그들모두가 만리마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 행정의 모든 일군들이 막장마다에 들어가 탄부들과 함께 일도 하고 후방물자도 안겨주면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로 생산자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일별, 주별총화를 엄격히 하고 아래탄광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정확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해당한 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우면서 탄광별사회주의경쟁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70일전투기간 굴진에 힘을 넣어 예비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해놓은데 맞게 자체의 힘으로 맥여의 소형페루를 해결하는 등 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고원탄광이 혁신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탄광일군들은 장마철생산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고 굴진, 채탄 등 모든 공정마다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특히 탄광에서는 많은 폭약을 절약하면서 발파효률을 80%이상 보장할수 있는 굴진방법을 모든 갱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드세게 내미는 한편 굴진소대들사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켜 매일 굴진전투목표를 1.4배이상 수행하고있다.

차명수동무를 비롯한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은 오늘의 만리마시대에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할 일념으로 힘찬 투쟁을 벌려 지난 6월 29일까지 년간 굴진계획을 완수하고 계속 혁신의 앞장에서 줄달음치고있다.

수동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과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투쟁본때로 일석탄생산계획을 115%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일군들은 장마철에도 석탄생산을 정상적으로 내밀수 있게 강력한 돌격대를 무어 석암분의 동발나무를 자체로 해결하였으며 이신작칙으로 대중의 열의를 최대로 고조시키고있다. 소대와 중대, 갱들사이의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속에 덕사갱의 탄부들이 계속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운곡탄광과 경둔탄광, 돈전탄광의 탄부들도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서 선구자가 될 일념으로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석탄증산성과로 빛내이고있다.

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탄차와 전차의 능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설비부속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석탄증산투쟁에 떨쳐나선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에 박차를 더해주고있다.

지금 20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석탄증산성과로 화답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된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석탄증산투쟁의 불길은 날이 갈수록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본사기자 리영민

높은 책임감이 기발한 착상과 실천을 낳는다

염주군 남새온실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의 뜻대로 하루빨리 온실남새생산을 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할 불타는 열의안고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고있는 염주군 남새온실농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소식은 들을수록 자랑스럽다.

온실환경종합감시체계의 확립과 적극적인 리용, 여러가지 립체재배방법도입…

특히 기발한 착상과 실천으로 병해충예방구제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총정의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에서도 적은 원가로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는 이들의 경험은 많은 온실남새생산자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따라 일떠서고있는 축산과 수산부문에서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고 전국도처에 건설한 양어장과 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실안은 공기습도가 높고 겨울철에도 땅이 얼지 않는다. 이런 조건에서 년중 남새를 계속 재배하기때문에 병해충예방구제사업은 온실남새생산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잎남새작물들의 종자를 디젤유로 처리하여 노란줄벼룩벌레에 의한 피해를 막고있는 경험을 먼저 놓고보자.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이 해충에 의한 피해를 적지 않게 받았었다. 여름철에는 그 피해를 이 더욱더 높아지군 하였다.

폐지벌레과에 속하는 이 노란줄벼룩벌레는 봄, 가을잎남새작물들의 어린잎시기에 침습하여 잎에 구멍을 내며 갉아먹어 생육에 큰 지장을 주었던것이다.

여러가지 농약을 구입하여 각이한 방법으로 리용해보았지만 점차 약효의 지속시간도 짧아지고 효과도 떨어졌다. 병해충들이 농약에 견디는 면역이 생기는것과 관련되여있었다.

이 사실앞에서 받게 된 일군들의 자책은 컸다. 온실에서의 병해충피해를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며 지난 시기처럼 농약주기에만 매여달린 낡은 사고방식과 일본새가 낳은 후과였다.

당에서는 지금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여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을것을 바라고있지 않는가.

당에서 바라는대로 훌륭여 건설한 남새온실들이 은을 내게 하자면 결정적으로 병해충예방구제사업을 개선해야 한다.

높은 책임감을 안고 일떠서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하는 일군들의 눈에 모든것이 새롭게 비껴들기 시작하였다.

어느날 6호동온실옆에 있는 차고주변밭을 지나던 일군들은 그곳에서 자라는 배추잎에서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였다. 온실안이나 야외의 다른 곳에서 자라는 배추잎들은 노란줄벼룩벌레의 침습을 받았는데 디젤유냄새가 나는 그 밭에서 자라는 배추잎에서는 피해흔적을 전혀 찾아볼수 없었던것이다.

백수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이 현상을 놓고 남새농사경험이 많은 오랜 농장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그 과정에 노란줄벼룩벌레가 디젤유냄새를 싫어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들의 머리속에 번쩍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잎남새작물들의 종자를 디젤유로 처리하면 어린잎시기까지 냄새가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해충이 침습하지 못할것이 아닌가.)

일군들은 즉시 실험해보았다. 먼저 선별한 배추와 무우종자를 디젤유에 여러시간동안 잠그었다가 건져내여 기름기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놓아두었다. 다음 잔모래와 1:1비률로 섞어 그늘에서 여러시간동안 말리운 후에 씨를 뿌렸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새로운 방법으로 종자처리를 한 잎남새작물들은 이 해충에 의한 피해를 전혀 받지 않았던것이다.

농장에서는 이 종자처리방법을 모든 호동들에 다 도입하였다. 그로부터 얻은 실리는 컸다. 많은 로력과 농약구입원가가 줄어들어 좋았다.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잎남새작물들이 싹튼 후부터 어린잎시기까지 이 해충에 의한 피해를 가시기 위해 3회정도의 농약을 주군 하였는데 지금은 그 공정이 없어졌다. 그리고 종자처리를 진행한 디젤유를 다시 운수수단들에 리용하고있으니 결국 공짜로 이 해충의 피해를 예방하는셈이다.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은 기발한 착상과 적극적인 실천을 낳는다.

온실안에 나비등을 설치하여 병해충구제효과를 높이고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기간 농장에서는 값비싼 농약들을 구입하여 리용하였지만 일부 종의 새끼벌레피해를 막지 못해 애를 먹군 하였다.

호동마다 예찰구역을 정하고 조사사업을 심화시키며 엽지벌레를 발생초기부터 제거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던 일군들은 드넓은 벌판에 설치된 나비등에서 착상의 실머리를 찾아쥐였다.

이렇게 되여 6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의 기간에 농장의 모든 온실호동들에 여러개의 나비등이 켜지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나비등의 효과는 뚜렷이 나타났다. 한개의 나비등만으로도 평균 30여마리, 최성기때에는 70마리이상의 병해충구제효과를 보았던것이다.

지난해 농장에서는 나비등을 리용하여 이전보다 농약구입원가를 40%이상 줄이면서도 열매남새생산을 150%이상 더 늘이였다.

지난 시기의 이러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지금 농장에서는 병해충예방구제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도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인민생활향상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안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하며 총정의 200일전투기록장에 높은 온실남새생산성과를 기록해가는 이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는 본받을만 한것이다.

본사기자 장은영

풀베기철이다.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더 많은 풀을 베여들이자

풀씨가 앉기 전에 1천여만t의 풀을 벨 목표

서해지구 농촌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월과 8월은 풀베기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다음해 농사를 잘 짓자면 풀거름을 많이 장만하여야 합니다.》

서해지구 농촌들에서 1천여만t의 풀을 벨 목표밑에 현재까지 하루평균 8만여t의 풀을 베여들이고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 더 높아진 실적이다.

이 성과는 풀베기전투이자 당정책관철전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구슬땀을 바쳐가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헌신성이 낳은 결실이다.

일군들이 대오의 기관차가 되여

종산간지대보다 풀거름원천이 부족한 곳이 벌방지대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에는 벌방지대 농촌들에서의 풀베기실적이 그리 높지 못하였다. 이러한 편향이 완전히 깨여지나갔다.

숙천군과 증산군의 풀베기실적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지난 시기에 비해 한주일동안의 실적이 2배이상으로 올랐다. 이것은 전례없는 실적이다.

이 성과는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일군들이 대오의 기관차가 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갈 때 기적이 창조될수 있다는것이 이곳 농업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숙천군에서는 일군들이 기적창조의 중요한 방도를 당의 의도대로 자기들이 대오의 기관차가 되는데 있다고 보고 작전도 실천도 현장에서 전투적으로 하였다. 그들은 김매기와 병충해막이, 이삭비료주기를 비롯한 논벼비배관리뿐아니라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세워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풀베기전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만단의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 선차적힘을 넣었다. 그리고 농장일군들과 함께 현지를 밟으며 풀원천을 모조리 찾은데 기초하여 포전도로보수를 앞세우게 하였다. 또한 륜전기재들의 만가동보장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앞장에서 해결해주었다. 결과 전투가 시작되자 모든 력량이 총집중, 총동원되는 속에 매일 많은 풀을 베여들일수 있었다.

재령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두어깨에 걸머진 직접적담당자, 관철자라는 높은 자각을 안은 벌안의 일군들이 남먼저 전투장한복판을 타고앉아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앞장에서 풀을 베여나갔다. 특히 일군들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당이 태워준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폭풍치며 내달리도록 현장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진행하였다. 이것이 농업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불을 지폈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풀씨가 앉기 전에 더 많은 풀을 베여들일 결사의 각오 안고 높은 공격속도를 들이대여 한주일동안에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못하였던 10여만t의 풀을 베여들였다.

선천군에서도 일군들이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풀베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농업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켜 풀베기실적을 올리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전초병이라는 자각안고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이른아침부터 많은 풀을 베여내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그리하여 군적으로 한주일동안에 1만여t의 풀을 베여들이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비약에로 추동하는 증산경쟁운동

서해지구의 농촌들에서 한주일동안에 풀베기계획의 30%를 돌파한 단위들이 지난해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비결은 당의 요구대로 집단적혁신운동인 사회주의증산경쟁운동을 활발히 진행한데 있다.

연탄군에서는 군의 책임일군들이 풀베기전투를 위한 증산운동에서 선동원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들이 자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전투장의 곳곳마다에서 전투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선동원들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왔다.

풀베기를 대대적으로 하여 지력을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은 최고의 분발과 노력으로 하루동안에만도 1 500t의 풀을 베여들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구장군과 동림군에서도 풀베기실적을 올리였다. 구장군에서는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이 풀베기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휘되도록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였다. 작업반별, 분조별, 작업조별, 세대별사회주의경쟁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군에서는 지난 시기보다 매일 수백t의 풀을 더 베여들이였다. 동림군에서는 전형을 창조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여 높이 세운 풀베기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덕천시와 성천군에서도 풀베기를 힘있게 다그쳤다.

덕천시에서는 혁신자들을 내세워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며 전투장에 련일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였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풀베기실적이자 거름더미높이, 쌀더미의 높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낫을 2개씩 준비하여 지난 시기보다 풀베기속도를 더욱 높여 매일 계획을 15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성천군에서는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가 풀베기전투에서도 은이 나게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나의 포전은 곧 내가 지켜선 조국,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자기 포전을 더욱 기름지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풀을 베여들이였다.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이 되여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며 증산경쟁운동을 활발히 진행해나갈 때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창일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김책시 동흥협동농장에서

흔히 풀거름생산에서의 질보장에 대해 론할 때 제철에 풀을 베는 문제와 풀더미에 진거름과 흙 등을 정확히 섞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하지만 김책시 동흥협동농장에서는 이보다 앞서 중시한것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풀베기전투시작을 앞둔 때였다. 김춘봉, 리현식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작업반들에서의 퇴적장준비정형을 료해하였다. 무슨 일에서나 성과를 거두자면 작전을 잘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한 그들이였던것이다.

일군들은 눈에 띄게 잘 만들어진 제4작업반 분조들의 퇴적장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퇴적장들의 바닥이 한결같이 20~30㎝깊이로 파져있었던것이다. 더우기 지난 시기에도 퇴적장바닥파기를 규정대로 하니 장마철 비물에 의해 풀거름의 비료성분이 많이 씻겨없어지는 현상을 극복하고 질을 높일수 있어 좋았다는 작업반장의 이야기에서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풀거름량에만 신경을 쓰며 질보장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지 못한 자신들의 일본새가 뉘우쳐졌다.

당에서는 지금 일군들이 현실에 깊이 들어가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것을 바라고있지 않는가.

풀거름량도 중요하지만 질보장은 더욱 중요하다. 질좋은 풀거름생산이자 알곡증산이다.

이런 관점밑에 일군들은 풀베기전투의 질보장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며 작전안을 전반적으로 다시 세웠다.

우선 퇴적장을 질적으로 잘 만들도록 하였다. 농장의 모든 퇴적장바닥을 규정의 요구대로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때 특별히 중시한 문제가 있다.

퇴적장을 종전보다 1.5배 크게 만들도록 한것이다. 즉 분조공동퇴적장은 500t, 세대별퇴적장들은 20t정도의 풀더미를 쌓을수 있는 크기로 만들게 하였다. 지난 시기 다른 분조들보다 퇴적장을 1.5배 크게 만듦으로써 비료성분과 유기물질손실량을 줄이는데서 큰 덕을 본 제4작업반의 경험을 일반화하도록 한것이다.

그리고 풀더미를 다 쌓은 후 퇴적장둘레에 도랑을 꼭 째주도록 하였다. 특히 올해 많은 비가 내릴것이 예견되는 조건에 맞게 이 사업을 정확히 진행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또한 일군들은 풀거름을 질적으로 만드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알려주었다.

지난 시기에는 풀더미에 진거름과 흙 등을 어김없이 섞어주는 문제만 강조되였다면 올해에는 질보장에서 나서는 다른 문제도 더 심도있게 론의되였다.

실례로 진거름을 만들 때 흙량은 풀거름 1t당 100~200㎏을 리용하며 풀과 흙을 층층으로 쌓지 말고 골고루 섞으면서 쌓아주도록 하는 문제, 풀더미를 다 쌓은 다음 반드시 흙을 덮어주어 물기와 비료성분이 날아나거나 비물에 씻겨내리는것을 막을데 대한 문제 등 풀거름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농장의 일군들이 세부적으로 파고들며 중시한 문제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도 둘째도 질보장이 기본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현실에 깊이 들어가 작전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빈틈없이 짜고들며 풀베기전투를 다그쳐가는 이들의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청년들이 앞장에 서서

대관군 대안협동농장 제1작업반에서

대관군 대안협동농장 제1작업반에서 풀베기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풀베기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매일 1.3배이상의 풀을 더 베여들여 계획의 60%를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어떻게 되어 이처럼 최고의 실적을 올리게 되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청년전위들이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오늘의 시대정신입니다.》

풀베기전투시작을 앞둔 지난 어느날이였다. 당면한 풀베기전투과제를 놓고 한자리에 모여앉은 작업반초급일군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매일 20-30t의 풀을 베여들이면서 김매기도 하고 장마철피해방지대책까지 세우자면 결정적으로 로력이 모자라기때문이였다.

침묵이 흘렀다. 이때 작업반장이 초급일군들을 둘러보면서 자기의 결심을 내놓았다.

《청년들을 위주로 풀베기조를 조직하고 그들을 200일전투의 앞장에 내세웁시다. …》

알고보니 그가 이런 의견을 내놓은데는 목적이 있었다.

풀베기도 적기를 놓치지 말고 해야 할 중요전투과제이다. 한편 풀베기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농사일들을 늦잡을수는 없었다.

이로부터 작업반장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온 작업반에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나래치게 하는데서 찾은것이였다.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작업반이 들끓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빨라야 풀베기는 물론 당면한 농사일들도 제때에 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이렇게 되어 작업반에서는 청년들을 위주로 20여명의 풀베기조를 조직하였다.

풀베기전투조직을 이렇게 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온 작업반이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세차게 들끓는 속에 200일전투성과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른아침 날이 밝기 바쁘게 풀베기전투장으로 나가 일손을 잡은 청년들은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적시며 풀을 베여 실어들이였다. 그리고 그날 벤 풀은 밤늦게까지 절단하여 집짐승우리에 넣었다.

이렇게 하니 한사람이 하루 1t이상의 풀을 베여들이게 된것은 물론 풀거름의 질도 더욱 높아졌다.

한편 김매기를 맡은 농장원들은 장마철에는 풀이 왕성하게 자라므로 정보당 수확고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면서 힘찬 전투를 벌리였다. 이와 함께 그들은 물도랑도 깊이 파내고 곳곳에 말뚝을 박은 다음 새끼줄을 늘여 한포기의 강냉이도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하였다.

청년들이 앞장선 결과 짧은 기간에 올해 풀베기계획의 60%를 해낸것은 물론 김매기와 장마철피해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도 일찌기 없었던 혁신이 창조되였다.

본사기자 김창길

풀거름생산에 미생물을 적극 리용

사리원시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땅을 기름지게 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지속적으로 높이자면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내야 합니다.》

최근 사리원시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새로운 방법으로 질좋은 풀거름을 생산하고있다.

그 방법은 종전과는 달리 생풀을 썩이는데 미생물을 리용하는것이였다. 그에 대해 알고싶어 우리는 이곳 기사장을 만났다.

농장에서는 지난 시기에 진거름과 소석회 등을 뿌려 풀을 썩이였다. 하지만 지난해에 그와는 달리 벤 풀을 쌓아놓고 거기에 미생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였다.

새로운 풀거름생산방법을 도입하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풀을 썩이는 기일을 단축하면서도 질좋은 발효퇴비를 생산하게 되였다.

이 발효퇴비는 유효미생물의 증식과 항생작용에 의하여 퇴비속의 병원성균이 억제되는것은 물론 부식산과 풀림성영양성분함량도 높다고 한다. 더우기 이러한 발효퇴비를 논밭에 내는 경우 땅속의 병원성균을 억제하고 질소나 부식산 등의 성분이 대량적으로 생겨나 농작물생육에 유리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겨울철에 강냉이짚이나 벼짚을 비롯한 마른 풀질에 열을 주지 않고 미생물로 유기물질을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수 있어 매우 실리적이다.

생산방법이 간단하여 받아들이기 쉽다. 쌀겨만 있으면 종균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다. 확대배양한 종균을 물에 풀어 풀더미에 뿌려준다. 이때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더미에 비닐박막을 씌우고 밑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흙으로 매질하거나 나래를 덮어준다.

그 상태에서 40~50일이면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질좋은 발효퇴비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종전방법에 비해 단위시간에 더 빨리 발효퇴비를 만들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농장에서는 올봄에 강냉이투리를 전부 모아들이고 미생물로 발효퇴비를 만들어 리용하면서 그 우월성을 더욱 파악하게 되였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할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깊이 새긴 농장일군들은 모든 농사일을 과학적으로 해나가는데서 이룩된 경험에 토대하여 올해에도 더 많은 발효퇴비를 생산할 목표밑에 풀베기작전을 짜고들었다. 농작물에 대한 비배관리를 진행하면서 풀베기를 해야 하는 조건이지만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풀베기전투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지금 보다 많은 풀을 베여들이려는 농장원들의 전투적사기는 충천하다. 그리하여 풀베기실적은 나날이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오철훈

풀베기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지적제품전람회 개막

지적제품전람회가 개막되였다.

이번 전람회는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발명, 특허기술을 비롯한 지적제품의 개발과 류통이 활성화되도록 추동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전람회장에는 첨단기술, 발명권, 특허권으로 등록된 기술들을 비롯하여 과학연구 및 교육단위와 기관, 기업소들에서 개발한 450여건의 기술제안들이 실물과 모형, 도해 등의 형태로 전시되였다.

전람회기간 강습, 발표회, 방식상학, 교류와 류통사업이 있게 된다.

개막식이 20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와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 발명가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리충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의 령마루에로 비약해나갈수 있는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지적제품의 개발과 류통사업은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번 전람회를 계기로 지적제품의 보급과 류통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새 기술창조사업이 활성화되고 첨단기술성과들이 생산과 건설에 널리 도입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신원군 률라리에서 통학배 운행

산촌의 호수에 울리는 배고동소리

신원군 률라리의 새로 생긴 인공호수에 통학배 《행복》호가 산골마을학생들의 웃음소리를 싣고 출렁이는 물결을 헤가르며 달리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황해남도물길공사가 벌어지면서 률라리에는 인공호수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여러 마을의 100여명의 학생들이 호수를 10리 에돌아야 리소재지에 있는 학교에 갈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혁명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황해남도의 책임일군들은 조직정치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짧은 기간에 통학배를 건조할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해주선박수리공장에 나가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하루빨리 통학배를 건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자고 하면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통학배건조에 필요한 철판, 용접봉을 비롯한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고 수많은 후방물자들을 보내주어 기술자, 기능공들의 열의를 높여주었다.

충정의 200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해주선박수리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힘찬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통학배를 건조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도의 책임일군들은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들을 즉시에 해결해주어 짧은 기간에 3개소에 부두를 번듯하게 꾸리도록 하였다.

지난 17일 통학배가 학생들의 첫 통학을 보장하였다.

기쁨에 넘친 아이들을 태우고 인공호수의 푸른 물결을 헤가르는 통학배를 보면서 이곳 주민들은 산골마을 사람들의 자그마한 마음속고충까지 헤아려 이토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는 당의 뜨거운 사랑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곳 주민들과 학생소년들은 당의 은덕을 한시도 잊지 않고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강성조선의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해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특파기자 박철

직맹일군들과 초급선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3돐을 맞으며 직맹일군들과 초급선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답사행군이 시작되였다.

답사행군대출발모임이 20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최수동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 전군, 전민이 뜻깊은 올해를 승리자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를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승절을 맞으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답사행군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선군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고귀한 업적이 력력히 어려있는 전적지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뜨겁게 응축되여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답사행군대원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선군혁명력사를 깊이 체득하며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인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백두의 천고밀림에 사고넘쳤던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열렬한 조국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본때를 힘있게 과시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직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모든 직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충정의 200일전투의 맨 앞장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행군대원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돌아보고 혜산혁명렬사릉 등을 참관하였다.

경공업부문 4.15기술혁신돌격대 전국기술혁신경기 진행

경공업부문 4.15기술혁신돌격대 전국기술혁신경기가 진행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자강력제일주의를 틀어쥐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이번 경기에는 경공업성산하 수십개 공장의 4.15기술혁신돌격대들이 참가하였다.

경기에 참가한 모든 단위들에서는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설비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밑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돌격대들에서는 이 기간 50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였으며 수백종의 설비부속품과 130여가지의 원료, 자재들을 국산화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경기에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 4.15기술혁신돌격대가 1등을, 함흥편직공장, 선교편직공장, 보통강신발공장, 신의주신발공장, 신의주방적기계공장 4.15기술혁신돌격대가 2등을, 신의주방직공장, 9월방직공장, 룡성영예군인사출장화공장을 비롯한 17개 공장의 4.15기술혁신돌격대가 3등을 하였다.

총화모임이 20일 평성합성가죽공장에서 있었다.

관계부문 일군들, 모범적인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순위가 발표되고 우수한 단위들에 표창장이 수여되였으며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직 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강국건설,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한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직이 수여되였다.

20일에 진행된 수여식에는 김덕훈내각부총리, 지식인들이 참가하였다.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은종섭 등에게 원사칭호가, 의학과학원 연구사 주성운에게 후보원사칭호가 수여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손영철, 실장들인 장덕길, 박렬, 평양철도종합대학 총장 리영철, 평양기계종합대학 연구사 조성철,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부원장 계인철, 석탄과학분원 처장 함상호 등이 교수의 학직을 수여받았다.

김일성고급당학교 부교장 방세훈, 지도교원 황화룡,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장원일, 실장 한찬현, 교원들인 김광익, 김기철, 연구사들인 리정혁, 고영국, 한남수, 김계선, 박사원생 리광혁,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연구사 문성철, 인민경제대학 부강좌장 손원철, 교원 리호일,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좌장 김문기, 부강좌장 김성남, 교원들인 최경림, 김충성, 차재룡, 평양건축종합대학 실장 박정남, 평양기계종합대학 교원 리정길,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강좌장 박영희, 평양외국어대학 강좌장 리주철, 교원 김강희, 연구사 리영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실장 최기정, 평양제1음악학원 지도교원 김명림, 리과대학 실장 리명복, 교원들인 강철룡, 유주현, 연구사 정영혼, 평양의사재교육대학 교원 최정심, 평성공업대학 교원 김광철, 남포수산대학 강좌장 김규중, 희천공업대학 학부장 장영민, 박사원 원장 박수일, 원산수산대학 부학장 김유관, 정준택원산경제대학 강좌장들인 한현, 강호진, 라진해운대학 교원 한시범, 국가과학원 실장 김광호, 연구사 로철준, 함흥분원 실장 김영수, 연구사 조정필, 의학과학원 연구사 리혜경, 산림과학원 실장 김영일, 농업성 책임부원 김성민, 보건성 책임부원 최순희, 황해북도농업과학분원 연구사 손홍인,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명연, 평양시제1인민병원 원장 고영준 등에게 박사의 학위가, 108명에게 부교수의 학직이, 802명에게 석사의 학위가 수여되였다.

이어 질의토론들이 있었다.

수여식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대를 이어 계승해갈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

어제도 오늘도 울리는 전선행렬차의 기적소리

우리 청춘들이 심장의 더운 피 끓이며 너도나도 달려가는 곳이 있다. 조국의 전리방선초소들이다.

여기에 이런 수자가 있다. 전국적으로 100여만명의 청년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 이것은 지난해 8월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가 전해진 하루동안에 종합된 자료이다.

전국각지의 청년들이 침략의 무리들과의 무자비한 복수성전에 앞을 다투어 나선것은 그 어떤 광풍이 휘몰아쳐도 혁명의 수뇌부와 운명을 함께 하며 목숨보다 귀중한 삶의 터전인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사수하려는 투철한 조국수호정신의 발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보다 조국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는 사업에 헌신하는것은 공화국공민의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되여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땅에는 해마다 련면히 이어지며 변함없이 펼쳐지는 광경이 있다. 그것은 나시자란 고향과 조국을 지켜싸우기 위해 이 나라 청춘들이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모습이다.

옷자락 날리며 자식들을 바래주는 어머니들, 청춘들의 가슴에 안겨지는 꽃송이와 꽃보라, 멀어질수록 더욱 크게 새겨지는 고향의 모습, 기름진 전야와 새 집을 지나 조국의 전리방선으로 기운차게 달리는 렬차…

이 땅의 청춘들의 몸과 마음을 싣고 줄기차게 달리는 전선행렬차의 기적소리는 어찌하여 세월이 갈수록 더 높이 울리는것인가.

세월의 언덕을 넘으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전선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되새기느라면 잊지 못할 6.25와 더불어 조국땅 방방곡곡을 누비며 즐기차게 달려온 전선행렬차가 눈앞에 안겨온다.

66년전의 그 나날에도 이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선행렬차를 타고 고향사람들의 환송속에 전선으로 조국을 지키러 떠났다.

전선탄원!

일터에서도 마을에서도 교정에서도 이 목소리가 높이 울려퍼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궐기한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열망을 반영하여 1950년 7월 1일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관하여》를 채택하였다.

하여 전쟁이 일어난지 불과 며칠 안되는 기간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32만여명의 청년들이 전선으로 탄원하였다.

공화국영웅 리수복도 바로 그 전선행렬차에 몸을 실었다. 남달리 향학열이 높았지만 편대신 손에 총을 잡은 리수복영웅.

다시는 식민지노예가 될수 없었기에,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서는 순간도 살수 없었기에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 선참으로 전선에 탄원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의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찾아주신 조국, 그렇게 찾은 조국이 목숨보다 귀중함을 뼈에 새기였기에 리수복영웅만이 아닌 이 나라의 수많은 아들딸들은 전선으로 용약 탄원해나섰고 딸다리가 부시지면 온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침략자들을 쳐부셨으며 조국을 지켜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될수 있었다.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전선행렬차의 기적소리와 더불어 전화의 나날에 발휘되였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은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넘으며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리고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였던 1990년대초에도 일터와 교정마다에서 세차게 타번지짓은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탄원열의였다.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

열렬한 조국수호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 전선행렬차의 기적소리가 더욱 높이 울리는 속에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총대가정들이 무수히 늘어나게 되였고 혁명적군인가정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도 태어났다.

오늘 우리 청년학생들속에서 조국보위는 더없이 신성한 의무로 되고 있다.

영웅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학교학생들은 물론 누구나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영웅이 될것을 희망하면서 조선인민군 입대를 열렬히 탄원하고 있다.

얼마전 조국보위초소로 달려나간 한 중학교졸업생의 일기장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나의 할아버지는 전쟁로병이다. 세대가 바뀌고 로화의 그날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저 남쪽땅에는 미국놈들이 둥지를 틀고있다. 이제는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미제와 맞서싸웠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 미국놈의 후예들을 쳐부실것이다. …》

계급의 총대, 조국수호의 총대는 한가정안에서도 굳건히 이어지고있었다. 그것은 어제날 할아버지, 아버지세대들이 높이 울린 전선행렬차의 기적소리였다.

이렇듯 세대를 이어가며 더욱 굳건해지는 조국수호정신이 있어 전선행렬차는 쉬임없이 달릴수 있었고 조국방선마다에서 만세의 함성은 더 높이 울려퍼질수 있었다.

그렇다. 세월의 언덕을 넘어 울리는 전선행렬차의 기적소리, 그것은 이 땅의 청춘들의 가슴마다에 만장약된 멸적의 의지이고 열렬한 조국수호정신이거니 전선행렬차의 힘찬 기적소리와 더불어 내 조국의 전리방선은 언제나 굳건한것이다.

본사기자 홍 성 철

‖ 경의를 드리자,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

전화의 나날 피흘려싸운 전쟁로병들이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이들의 가슴에 번쩍이는 훈장과 메달들, 그 하나하나에 얼마나 가슴뜨거운 만단사연들이 무겁게 실려있는것인가.

불타는 락동강을 건너온 병사도, 1211고지전투에서 혁혁한 군공을 세운 지휘관도, 전화의 불비속을 헤쳐온 간호원도 있다.

세월은 멀리 흘러 전승의 력사엔 어느덧 63돐기의 년륜이 새겨지고 있다.

이제날 젊은 병사도, 단발머리칸 호원도 이제는 귀밑머리 희여졌건만 당과 조국은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그들의 군공을 영원히 잊지 않고 시대의 전렬에 내세우고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속에 메아리쳐 온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말씀이.

전쟁로병들은 새 세대들에게 부탁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받들어 이룩한 승리의 전통 우리 원수님따라 끝까지 빛내어가라고.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신 충 혁

우리 가정의 자랑—초소에서 온 편지

서성구역 서천동 10인민반 김형구동무의 가정에서

수 필

로병의 위훈

전승의 날이 다가올 때면 나에게는 잊지 못할 로병들의 모습이 자주 떠오르군 한다. 그들속에는 전승의 축포를 직접 쏴올린 군위제19고사로병련대의 중대장이였던 량봉린로병도 있다.

1952년 7월, 수도 평양을 사수하여 정전리제선에서 맹렬한 화력전을 벌리던 그들의 전투모습을 직접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대지휘관들과 전투원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의로 된 감사문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고사포병들이 저 불길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불사조라고, 저 동무들이 바로 영웅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불사조라고 불러주신 용사들, 그 영웅고사포병들의 중대장이였던 량봉린로병에게는 얼마나 하많은 불멸의 위훈들이 간직되여있을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영웅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력사를 체현한 증견자들이며 위대한 수령들의 존함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툇밖에도 그는 이야기에 앞서 색바랜 사진첩부터 펼쳐들었다. 그는 자주 자그마한 사진들이 붙어있는 사진첩을 번져보군 한다.

군복을 입은 새파란 청춘들의 모습이 그를 바주볼 때면 그의 마음은 가렬했던 그 전장에로 달려간다. 그러면 그들은 전화의 그날처럼 중대장의 지휘기발을 바라보며 전투명령을 기다릴것만 같다. 피를 나눈 전우들, 이름도 잊혀지지 않는다. 견장우에 견더간 별까지도…

로병은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로병의 수첩엔 아직도 중대전우들의 이름과 생일, 고향과 집식구들의 생활형편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다 적혀져있었다. 살아있든, 이미 떠나갔든 그들은 한번도 옛 중대장의 가슴속에서 떠나본적이 없었다.

《준엄한 싸움을 앞둘 때면 전우들은 나에게 고향에 보내고싶어 찍었던 사진들을 맡기군 했습니다. 적기를 피해 엎드릴 권리가 없는 우리 고사포병들의 싸움은 목숨을 내건 결사전이였으니까요.》

그러나 결사전에 나섰던 전우들속에는 중대장에게 맡겼던 사진을 다시 찾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사진 한장, 시신조차 남기지 못하고 희생된 전우들은 또 그 얼마이먼가.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는 안해와 어머니들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는 자식들에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용사들의 위훈을 알려주고 그들의 모습을 영원히 새겨주며 그들의 음언을 전해주는것은 나의 의무였습니다. 그것이 떠나간 전우들앞에 옛 중대장인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지요.》

로병에게는 전국각지에서 날아온 많은 편지가 있었다. 그 편지들속에는 이런 글도 있었다.

《…나는 로병동지에게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력사의 기록은 금주고도 못 사며 전화의 용사들의 사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값비싼 전승의 재보들이다. 그 재보를 로화속에서 오늘까지 60여년세월 목숨처럼 지켜왔으며 그들의 후대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한생을 바쳤고 전하지 못한 사진을 오늘까지도 심장속에 품고 산 로병의 그 위훈, 진정 그것은 영웅전사들의 영생을 지켜낸 위훈중의 위훈이 아니겠는가.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자기의 전투당에 앞서 무덤도 없이 쓰러진 전우들의 위훈부터 먼저 소개해줄것을 부탁하던 수많은 로병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였다. 백발의 옛 종군기자가 보내온 마지막종군기며 돌같은 친구들마디에서 들려오는 로병예술선동대원들의 노래소리, 새 세대들에게 로병들이 넘겨준 피젖은 공화국기발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량봉린로병과도 같이 전화의 그날에는 승리를 위해 싸우고 청화로운 오늘에는 전승의 력사를 지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전쟁로병의 의무를 다해가고있는 그들의 위훈이야말로 그 어느 나라 로병들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참된 위훈중의 위훈이 아니겠는가.

나는 량봉린로병의 심장의 한 부분과도 같은 전우들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세월이 흐르면 사진도 색이 날 기마련이다. 하지만 우리 당은 이 땅의 후손들이 영원히 잊어서는 안될 전화의 용사들의 모습을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군상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시대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었다. 그 숭고한 의리의 물속에서 영웅고사포병들도 영생하는것이 아니랴.

본사기자 조 향 선

이 나라의 가정들에는 나름대로의 자랑들이 많다. 그러나 제일가는 자랑은 조국보위초소에 자식들을 세운 후방가족의 자랑이라 해야 할것이다.

얼마전 김철주사범대학 교원 김형구동무의 가정을 찾았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총대를 메고 조국보위초소에 섰을 때 최고사령관의 전사라는 높은 영예를 지닐수 있으며 자기의 청춘시절을 값있게 보냈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습니다.》

김형구, 최봉애부부는 자식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인민군대후방가족이다.

《지의 아들딸 세남매가 여러해동안 초소에서 보내온 편지들이랍니다.》

최봉애녀성은 이렇게 말하며 두툼한 편지묶음을 꺼내놓았다.

마치 자식들의 모습이 편지마다에서 어려오는듯 만족한 웃음을 짓는 그들부부의 얼굴에는 자랑이 한껏 살려있었다.

자식들을 초소에 세운 부모들이 의례 그러하듯 맏아들 대혁이에게서 첫 편지가 왔을 때 이들부부는 초조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고 한다.

그간 앓지는 않았는지, 군무생활은 잘하고있는지…

하지만 편지를 펼쳐든 그들의 눈빛은 차츰 감동으로 젖어들었다. 편지의 글줄마다에서 대혁이의 맏형, 맏누이가 되여 살뜰히 주고 이끌어주는 참된 지휘관들과 사관들의 모습이 어려왔다. 대혁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저는 성스러운 군기앞에서 군인선서를 한 병사입니다.

한 가정의 맏아들이기 전에 조국의 맏아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충직한 전사가 되겠습니다. …》

해가 다르게 몸도 마음도 몰라보게 성장해가는 맏이가 미덥고 자랑스러울수록 둘째는 물론 딸도 초소에 세우려는 결심은 더욱 굳어져갔다.

하여 3년전에는 대룡이가, 그 이듬해에는 딸 예영이가 혁명의 군복을 입게 되였다.

이렇게 세 자식을 모두 초소에 세우니 편지도 그만큼 잦아졌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진행한 열병식에 참가하였다는 맏이의 편지가 오고 둘째의 부대에서는 아들이 군무생활을 잘하고있다는 감사편지와 함께 우등사수의 영예사진까지 모교에 보내왔다. 신입병사훈련을 마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시찰을 받은 초소의 병사가 되였다는 딸의 편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또 얼마나 컸던가.

얼마전에는 군무생활에서도 한 골자들이 모자라 애를 먹고있을 때였다. 최영아동무는 지휘관들과 토의하고 어느 한 공장으로 달려갔다. 넌데없이 나타나 일손도 도와주고 열참이면 노래도 불러주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처녀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온 돌격대원이라는것을 알게 된 공장의 로동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얼마후 최영아동무는 애써 마련한 골자를 자동차에 그득 싣고 돌격대로 돌아왔다.

오늘도 최영아동무는 조국을 지키는 성천에서 피흘려싸운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삶의 거울로 소중히 새겨안고 청춘시절의 값높은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1950년대 용사들의 넋은 이렇게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조 경 철

이 어 가 는 참 된 넋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평양시려단 평천구역대대 최영아동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당을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눈보, 비보, 바람포가 유명한 세포땅에서 자연의 광란을 이겨내기에는 최영아동무가 너무도 연약하기만 했다. 바람이 일단 휘몰아치면 동판우에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웠다. 삽이 날리여 땅에 제대로 박을수 없었고 돌무리와 나무뿌리, 돌들을 걷어내느라 손에는 온통 물집투성이였다. 힘겨울 때마다 최영아동무는 외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생각했다.

부대의 돌격로를 열기 위해 피끓는 가슴으로 불뿜는 적의 화구를 막고 수류탄묶음을 그러안은채 적땅크를 맞받아나가던 인민군용사들.

조국을 지키는 피어린 격전에서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영웅전사들의 넋이 깃든 이 땅에서 나의 심장은 어떻게 고동치고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강인하게 일손을 잡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들이 일하는 작업장과 멀지 않은 야산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군놈의 물량에서 참관자들은 미제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안겨준 불구대천의 원쑤라는것을 더 깊이 심장에 새아박았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후 야수의 본성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수많은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제주도에서 감행된 학살만행과 지리산일대에서의 인민학살참구를 비롯하여 미제가 감행한 류혈참사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애국적인민들과 죄없는 사람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산천초목은 피로 물들여지게 되였다.

중세기적인 인간증오사상과 반동적인종론으로 길들여진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락동팔산에서 800여명을 수직갱에 처넣어 학살, 은률광산에서 2 000여명의 로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10여명씩 죄줄로 배를 꿰여 갱에 먼저 학살, 신천에서의 대학살만행…

미제는 강점후 첫날부터 남조선을 대아시아전략실현의 군사적발판으로, 침략적군사기지로 만들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우리가 조선에 와서 몇십만명의 희생을 내었는데 어찌 조선을 거저 내놓겠는가, 우리는 조선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웨친 덜레스놈의 망발은 미제의 변함없는 침략적야망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는것이였다.

참관자들은 미제에 대한 치솟는 적분을 안고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감행된 악랄한 제재압살과 모략책동을 폭로하는 자료들을 비롯하여 반미교양관의 전시물들을 돌아보았다.

기어이 피값을 받아내리라!

이것은 백수십년전부터 침략과 략탈을 일삼으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운 철천지원쑤 미제에 대한 쌓이고쌓인 분노와 증오의 폭발이였다.

참관자들은 미제를 천백배로 복수할 맹세로 심장을 펄펄 끓이며 다음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글 및 사진 신 철

분 노 의 웨 침 — 피 는 피 로 써 !

반 제 반 미 계 급 교 양 의 거 점 인 중 앙 계 급 교 양 관 을 찾 아 서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해온 철천지원쑤이며 오늘도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가로타고 앉아 주인행세를 하는 우리 혁명의 주되는 대상입니다.》

미제와 일제,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적만행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하는 력사의 고발장으로 새로 일떠선 중앙계급교양관을 찾는 복수자의 대오가 끊임없이 흐르고있다.

피는 피로써!

복수자들의 심장을 쾅쾅 두드리는 이 글발앞에서 누구나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쥔다.

미제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안고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반미교양관의 전시실로 들어섰다.

미국의 력사는 침략의 력사라는것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미제야말로 침략과 략탈로 생겨나고 비대해진 침략의 원흉이라는것을 더 잘 알수 있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피비린 살륙만행으로 인디안들을 멸살시키면서 그들의 땅을 빼앗은 양키놈들은 대시양연안에서 태평양연안까지 령토를 확장하게 되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침략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피바다우에 생겨나고 침략과 략탈로 살찌운 미국식인종들은 벌써 19세기 30-40년대에 아시아대륙침략에서 우리 나라가 차지하는 전략적중요성으로부터 조선침략야망을 드러내놓았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어느 한 사관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죄악은 침략력사의 서막을 알린 침략선 《서먼》호의 침입로를 보여주는 사관이였다. 총포를 마구 쏘아대며 온갖 략탈과 만행을 일삼던 침략선 《서먼》호는 김응우선생님의 지휘밑에 떨쳐나선 평양인민들의 화공전술에 의해 대동강에 수장되였다. 《서먼》호의 격침은 그때까지의 미국해외침략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수치스러운 참패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미투쟁에서 거둔 첫 승리였다.

참관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더러운 침략적야욕이 비단 어제오늘에 생긴것이 아니라 백수십년전부터 시작된 필요한 것임을 여러 전시물들을 통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참관자들의 발걸음은 어느 한 관상앞에 이르렀다.

1925년 7월 25일 정원군 순안면(당시)에서 미국선교사놈이 파수원에서 떨어진 사과 한알을 주었다고 하여 12살난 김명섭소년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기는 천추에 용서 못할 국악무도한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캄상앞에서 참관자들은 오래도록 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이 울화는 미국선교사놈이 일제와 짜고들어 감행한 롱당포대참살만행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비분에 떨리는 강사의 목소리가 전시실에 울렸다.

해주 《구세병원》의 미국선교사놈이 일제와 짜고들어 1924년 4월 파도사나운 어느날 《구세병원》 간호원들과 의창, 석동학교 학생 250명을 《군함구경》을 시킨다는 구실밑에 남은 짐배에 태워 해주앞바다에 끌어내다가 일본군함으로 질배를 들이받아 침단수장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그것이 바로 력사에 알려진 롱당포대참살만행이였다.

롱당포대참살만행을 보여주는 유화를 바라보느라니 금시라도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검푸른 파도에 실려 들려오는듯싶었다.

참관자들의 젊음은 미제야말로 일제의 우리 나라 침략의 공범자라는것을 고발하는 전시물들에 이르렀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해 악담을 퍼붓고 공공연히 모독하면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지지해나선것이 바로 미제였다. 미제야말로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를 적극 부추기며 갖은 못된짓을 다한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였다.

미제에 대한 참관자들의 적개심은 국토를 두동강낸 저주로운 38°선을 가로타고앉아 찍은 미제침략군놈의 사진앞에서 더 세차게 끓어번졌다. 수천년동안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던 우리 민족, 외세가 제멋대로 설정한 분렬선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져살지 않으면 안된 우리 겨레의 가슴아픈 비극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미제침략군놈의 물골에서 참관자들은 미제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안겨준 불구대천의 원쑤라는것을 더 깊이 심장에 새아박았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후 야수의 본성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수많은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제주도에서 감행된 학살만행과 지리산일대에서의 인민학살참구를 비롯하여 미제가 감행한 류혈참사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애국적인민들과 죄없는 사람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산천초목은 피로 물들여지게 되였다.

중세기적인 인간증오사상과 반동적인종론으로 길들여진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

사대매국과 반인민적악정을 일삼는 반역도당은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외세의 패권전략에 추종하는 매국역적행위

온 남조선땅이 증오와 분노의 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결정한 괴뢰집권세력을 단죄규탄하는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있다. 《현대판을사오적》, 《치명적이고 망국적인 선택》, 《민중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져온 대재앙》…

하루아침에 《싸드》배치라는 날벼락을 맞은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은 궐기대회와 서명운동, 단식롱성을 비롯한 완강한 투쟁으로 괴뢰당국의 망동에 항거해나섰다. 괴뢰역도의 사진이 갈기갈기 찢겨져 넝마처럼 길가에 나딩굴고 《싸드》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벌이던 괴뢰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 물병과 닭알세례를 맞고 비맞은 수닭마냥 후줄근해 쫓겨났다. 지어 경상북도지역의 《새누리당》의원들까지 집권자의 처사에 반기를 들고있다.

괴뢰당국의 《싸드》배치결정을 전면백지화할것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은 지금 남조선 전지역으로 급격히 확대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괴뢰집권세력은 《북의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라느니, 《안보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나발을 불어대며 《싸드》배치를 정당화하고있다. 며칠전 박근혜가 《지금은 〈싸드〉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론쟁을 멈출 때》라고 비린청을 돋군것은 인민들에게는 입다물고 가만있으라는 강박이며 졸개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에 구애되지 말고 《싸드》배비를 다그치라는 지령이다.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재앙의 화근인 《싸드》를 남조선에 기어코 끌어들이려고 발광하는 박근혜패당의 처사는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놀음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군사적도발로서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를 극도의 긴장상태에 몰아넣는 분별없는 망동이다.

괴뢰패당이 《북의 위협》을 구실로 《싸드》의 남조선배치결정을 합리화하는것은 양대가리 걸어놓고 말고기 파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들이 《싸드》배치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압살야망을 한사코 실현해보려는 침략적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외세를 등에 업고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는것은 박근혜패당의 궁극적목적이다. 이로부터 괴뢰들은 지금껏 있지도 않는 《북의 핵, 미싸일위협》을 극구 여론화하면서 그에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미국과의 북침을 위한 군사적공모결탁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괴뢰들의 발악적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국은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우리의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 군사적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우리의 전략적지위가 날로 강화되는데 질겁한 박근혜패당이 상전에게 의존하여 반공화국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는 한편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해 벌려놓은것이 《싸드》의 남조선배치소동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파국에 처해있다. 쌍방간의 불신과 대립이 극도에 달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괴뢰당국의 무분별한 《싸드》배치소동이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최악으로 격화시키고 정세를 전쟁의 문어구에로 더욱 바싹 몰아가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역적패당이 《싸드》를 끌어들인다 어쩐다 하며 외세와 함께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할수록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은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될것이다. 우리는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에 사로잡혀 내외가 강력히 반대하는 《싸드》를 한사코 남조선에 끌어들여 민족의 머리우에 핵재난을 들씌우려고 발광하는 반역무리의 만고죄악을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괴뢰집권세력이 강행하고있는 《싸드》배치놀음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놀아나면서 조선반도를 대국들의 핵전쟁터로 내맡기는 쓸개빠진 매국매족행위이다.

괴뢰들은 《싸드》의 남조선배치에 대해 3국을 겨냥한것이 아니라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한것이라고 장변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다.

내외가 공인하고있는바와 같이 《싸드》의 남조선배치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군사적우세로 조선반도주변나라들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전략적요구에 따른것이다.

지금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싸드》가 《대북방어용》이라고 할수 있는 명분은 전혀 없으며 그의 남조선배치는 조선반도주변나라들의 전략무력을 무맥하게 만들려는 미국의 압박 및 견제용이라고 평하고있다. 얼마전에도 한 전문가는 《싸드》가 조선의 미싸일에는 대처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의 중요구성부분으로는 될것이라고 하면서 《싸드》의 남조선배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의 서곡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 박근혜패당은 내외에서 고조되는 《싸드》배치반대기운을 눅잦히기 위해 《북지역만을 사정권에 두는 제한적레이다의 도입》을 운운하고있다. 하지만 그런 유치한 술책은 통할수 없다. 남조선에 《싸드》가 배치되면 동북아시아전역을 핵조준경안에 집어넣으려는 미국의 전략적기도가 보다 현실화되게 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꼬물만 한 주대도 없이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의 더러운 앞잡이노릇을 하는 박근혜패당의 망동은 우리 민족의 리익을 서슴없이 희생시키는 매국역적행위로 된다.

조선반도주변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싸드》의 남조선배치가 자국에 중대한 전략적손해를 주기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응할것이라는 강경한 립장을 밝혀왔다. 앞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대국들간의 우발적충돌이 일어난다면 남조선의 《싸드》기지는 불피코 1차타격대상으로 될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게 된다.

민족의 운명과 북남관계의 전도는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가 되여 남조선인민들의 머리우에 참혹한 재난을 서슴없이 몰아오는 박근혜패당이야말로 한시도 살려둘수 없는 매국반역의 무리이다.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거역하며 친미사대와 매국반역을 일삼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시대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남조선에서 날로 격렬해지고있는 각계층 인민들의 《싸드》배치반대투쟁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것으로도 부족하여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귀중한 조국강토를 대국들의 대결장으로 내맡기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박근혜패당을 절대로 용납치 않으려는 의지의 과시이다.

분노한 남녘의 민심은 지금 분화구를 찾는 용암처럼 이글거리고있다.

심 철 영

전쟁화약고에 불을 다는 무모한 광증

《싸드》철회답변을 받아내고야말것이다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 초불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성주《싸드》배치저지 투쟁위원회가 18일 경상북도 성주군청앞에서 미국과 괴뢰패당의 《싸드》배치결정을 반대하는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6번째로 진행된 이날의 초불집회에 성주군의 각계층 주민들 수천명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싸드반대!》 등의 구호를 웨치며 《싸드》배치결정을 철회할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싸드》배치후보지로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성주가 하루아침에 배치지역으로 확정되였다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납득할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성주군 주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보수패당이 《싸드》를 반대하면 무력대고 욕설을 퍼붓고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인다고 규탄하였다.

보수언론들까지도 성주군 주민들의 《싸드》반대집회에 대해 외부세력이 개입했다고 지껄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5만 성주군 주민들이 〈싸드〉를 반대하는 진짜외부세력이다.》고 웨치였다.

그들은 국방부 장관이 《싸드》가 안전하다고 떠들어대고있는데 대해 비난하고 력사의 죄인이 되고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반대립장을 받아들여야 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군내주민들이 힘을 모아 《정부》로부터 《싸드》철회답변을 꼭 받아내고야말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싸드》배치에 항의하는 긴급행동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가 14일 대전에서 미국과 박근혜패당의 《싸드》배치에 항의하는 긴급행동을 전개하였다.

단체는 남조선주둔 미군에 《싸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발표가 있은지 5일만에 급기야 경상북도 성주군이 배치지역으로 정해졌다고 폭로하였다.

《싸드》의 실효성에 대한 론난이 격화되고있다고 하면서 단체는 《싸드》배치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군사적긴장과 새로운 랭전만 부추길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전지역의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사회적 갈등만 고조시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규탄하였다.

조선반도평화와 안전이 심각히 위협당하는 현 위기실태를 대전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긴급행동에 나섰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남북관계가 악화되고있는 때에 《싸드》배치를 강행하는것은 화약고에 불을 다는 격이라고 하면서 성주뿐아니라 이 땅 어느 곳에도 《싸드》를 들여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싸드》라는 무기체계가 아니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라고 하면서 단체는 박근혜《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싸드》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위한것이고 남조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변나라들과의 관계도 파탄으로 몰고가 경제파국을 불러올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싸드》배치의 위험성을 폭로하는 긴급행동을 계속 이어갈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반역《정권》에 대한 울분의 폭발

최근 남조선에서 괴뢰당국이 강행하는 또 하나의 로동개악인 《조선업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괴뢰당국이 내놓은 《조선업구조조정》이라는것은 파국에 처한 조선업실태의 책임을 모두 로동자들에게 들씌우면서 그들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재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반인민적로동악정이다. 이것을 남조선로동자들이 과연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남조선로동자들은 괴뢰당국의 무능력과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엉터리경제정책으로 초래된 조선업의 위기와 혼란의 책임을 로동자들에게 떠넘기면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밑에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박근혜《정권》을 조선업위기의 주범으로 규탄하면서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투쟁을 선언해나섰다.

그들은 지난 7월 13일 서울의 여의도에서 일방적인 《구조조정》중단을 괴뢰당국에 요구하는 대표자총파업선포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파업을 벌리기로 하였으며 모든 성원들의 고용안정보장과 하청로동자들의 처지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민주로총 경남본부도 부산, 울산지역의 조선업로동자들과 공동투쟁을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조선업위기의 주범인 괴뢰당국을 규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수습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경상남도지역 로동자들의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투쟁에 떨쳐나섰다.

남조선에서 조선업로동자들의 투쟁이 강화되고있는것은 괴뢰당국의 반역적악정의 필연적산물이다.

남조선당국은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의 실패로 조선업분야에서 커다란 위기가 발생하고 기업체들이 파산에 몰리게 되자 재벌들의 리익만을 따지면서 《구조조정》의 광풍을 일구어 전체 조선업로동자의 40%에 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고있다. 《로동자들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고 갖은 교태와 위선, 허위로 민심을 기만하며 《대통령》벙거지를 쓴 박근혜역도는 무지와 엉터리경제정책으로 조선업을 최악의 위기속에 몰아넣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인민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가차없이 짓밟고있다.

남조선에서 로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바람은 조선업뿐이 아니라 해운업분야에도 몰아치고있다.

이로 하여 격노한 남조선민심은 활화산처럼 끓어번지고있다.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당한 남조선로동자들은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앉아서 고스란히 죽음을 당할수 없어 결단코 항거의 길을 택하였다. 그들은 로동자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며 한줌도 못되는 재벌들의 리익만 옹호하는 박근혜패당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울분을 안고 반《정부》투쟁에 대중적으로 궐기해나서고있다.

남조선의 건설로동자들도 며칠전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괴뢰당국의 야만적인 로동운동탄압과 반역정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지역의 10만명 건설로동자들이 총파업투쟁에 나설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야말로 현 괴뢰집권자의 통치기간은 경제파괴, 민생악화로 날과 달이 이어진 고통스러운 나날이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박근혜역도의 집권으로 생존의 권리를 깡그리 빼앗겼다.

제입으로 광고한 《경제민주화》공약을 집권초기에 벌써 거치장스럽다고 집어던지고 친재벌정책에 몰두하면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실업과 극도의 생활난밖에 가져다준것이 없는 괴뢰역도에게 남조선로동자들은 더이상 그 어떤 기대도 희망도 걸지 않으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투쟁의 거리에 대중적으로 떨쳐나 반역《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이다.

보수당국의 로동악정을 짓부시고 경제파괴, 민생악화의 주범인 박근혜역도를 매장해버리기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기세는 지금 무섭게 폭발하고있다. 더이상 재벌과 《정권》의 리익을 위해 로동자가 희생되는 현실을 용납할수 없으며 반인민적인 썩은 제도를 뒤집어엎어야 살길이 열리기에 남조선로동자들은 결사의 투쟁에 궐기해나서고있다.

《로동자들이 싸우지 않는다면 부패한 〈정권〉의 제물이 될것이다. 로동자여 투쟁하라!》, 《박근혜 퇴진!》, 《반역〈정권〉 타도!》, 이것이 독재와 폭압의 철쇄를 마스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쟁취하려는 남조선로동자들의 한결같은 웨침이다.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며 그들의 대중적항거는 반역《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것이다.

최 진 향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는 쓸개빠진 망동

남조선괴뢰당국의 친일매국자세가 다시금 드러나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괴뢰들은 일본군성노예범죄기록물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등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 《유네스코등재는 민간몫》이라는 당치않은 구실을 대며 전액 삭감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것은 박근혜일당에게 일본군성노예범죄기록물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자료들을 체계화하여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것은 남조선당국이 응당 해야 할 일이다. 각계층의 압력에 못이겨 남조선당국도 일본군성노예범죄기록물의 유네스코등재에 나선 민간단체들에 자금을 대주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간몫》이니 뭐니 하며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등을 돌려대는것이야말로 그 누구의 공감도 받을수 없는 억지스러운짓이 아닐수 없다.

과거 일제가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일본군성노예범죄만행은 우리 민족이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결코 잊을수 없으며 그 대가를 반드시 천백배로 받아내야 할 특대형죄악이다. 이것을 력사와 세계앞에 영원히 기록하고 대를 이어가며 폭로하기 위한 중대사를 놓고 당치않게 그 무슨 《민간몫》을 운운하고 네일내일을 따지는것 자체가 조선민족의 피와 넋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민족반역자들의 추태이다. 그것이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호두둔하고 덮어버리는 쓸개빠진 친일매국행위로 된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괴뢰패당의 이번 망동은 남조선당국이 지난해말 일본과 벌려놓은 성노예범죄문제와 관련한 수치스러운 매국협상의 필연적결과이다. 폭로된바와 같이 당시 박근혜패당은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던져주는 몇푼의 돈을 받아먹는 대가로 일본군성노예범죄문제의 《최종적해결》을 약속하는 굴욕적인 《합의》를 꾸며냈다. 그리고는 뻔뻔스럽게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최상의 것을 받아냈다.》고 고아대면서 저들의 친일역적행위를 정당화하였다. 이번에 괴뢰당국이 일본군성노예범죄기록물의 유네스코등재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한것은 그 매국《합의》와 일본당국의 압력에 따른것이다.

하기야 대끝에서 대가 나고 싸리끝에서 싸리가 난다고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는 《특등일본인》으로 불리우고 《대통령》감투를 쓴 이후에는 《반일은 시대착오》라는 망언을 내뱉으며 일본의 몸서리치는 과거죄악을 몽땅 묻어버리는 사상 최악의 매국협정을 체결한 《유신》독재자의 더러운 후예가 달리 행동할수 있겠는가.

박근혜역도는 집권후 일본과의 그 무슨 《신협력시대》를 운운하며 친일매국의 치욕스러운 행로를 걸어왔다. 친일에 환장하고 사대의식이 체질화된 괴뢰역도는 과거죄악을 부정하며 독도강탈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한 력사외곡, 재침책동에 항변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굴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섬나라족속들이 더욱 오만무례하게 처신하게 하였다. 이번에 괴뢰당국이 일본군성노예범죄기록물의 유네스코등재를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것은 우연이 아니라 집권후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져온 박근혜역도의 친일매국행위의 연장이다.

지금 만고의 친일역적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들은 당국이 일본군성노예범죄기록물의 유네스코등재를 방해하는 예산삭감책동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런 속에 지방자치단체 인사들은 당국이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며 예산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나서서라도 일본군성노예범죄기록물의 세계유산등재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이런 치솟는 반일기운에도 불구하고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반동들과의 결탁을 날로 강화하고있는 박근혜패당이야말로 하루속히 력사무대에서 제거해야 할 추악한 매국역적의 무리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력사의 치욕을 끝장내는 길은 21세기 〈을사오적〉 박근혜를 민족내부에서 단호히 제거하는것이다.》라고 웨치면서 반역《정권》퇴진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박근혜패당이 일본반동들과 공모하여 일제의 죄악을 덮어버리려고 제아무리 발광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천인공노할 과거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며 일본상전을 등에 업고 추악한 명줄을 이어보려고 발악하는 가증스러운 역적무리를 가차없이 징벌할것이다.

장 임 향

재침의 발판을 닦기 위한 어리석은 놀음

지난 12일 일본반동들이 서울에서 《자위대》창설기념행사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지난해 반미표적이 되여 징벌을 면치 못했던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리퍼트와 괴뢰국방부, 외교부의 관계자들이 행사장에 줄레줄레 나타났다. 그 꼴이 실로 가관이다.

일본은 전범국이다. 지난 세기 전반기 일제는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일본은 그에 대해 마땅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법적,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있다.

특히 우리 인민을 대상으로 한 일제의 과거죄행은 특대형반인륜범죄를 포함하여 토지강탈, 자원략탈, 문화재략탈 지어 언어말살까지 노린 세계 그 어느 침략국가도 감히 엄두내지 못한 가장 포악하고 악랄한것이였다. 40여년간에 걸치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지배정책의 목표는 조선민족말살이였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일제가 패망한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배상책임에서 한사코 벗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고 세계정복에로 질주하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최근시기 일본에서 헌법개정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첨단무기도입, 핵무장화, 《집단적자위권》행사의 합법화, 안전보장관련법시행, 군사협정체결 등 군사대국화책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는것은 그에 대한 실증으로 된다.

일제침략군의 후신이 바로 《자위대》이다.

미국의 《반테로전》에 합세하여 해외군사작전의 경험을 쌓은 일본《자위대》는 피냄새를 맡은 승냥이마냥 우리에게 뛰쳐나가려 하고있다. 안전보장관련법시행으로 재침의 법적담보를 마련한 일본《자위대》가 일단 해외침략에 나서는 경우 아시아인민들이 당할 참변과 재난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자위대》가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는것은 시간문제이다.

격분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일본반동들이 《자위대》창설기념행사놀음을 서울한복판에서 벌려놓은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지난 2년간 이 행사를 남조선인민들의 항의와 분노가 두려워 대사관뒤골방에서 진행해왔으나 이번에는 뻐젓이 시내호텔에서 벌려놓았다.

이것은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행위가 아닐수 없다.

일제의 군화발에 무참히 죽은 수천수만의 조선사람들의 령혼이 그 땅에 잠들고있다. 그 어디를 둘러봐도 조선사람의 피가 슴배여있는 땅에서 《자위대》창설기념행사를 로골적으로 벌려놓았으니 이보다 통탄할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일본반동들이 애비의 친일사대매국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패당이 《정권》의 자리에 앉아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조선재침책동을 더욱 로골화할것을 타산하여 벌린 망동은 간특하기 그지없다. 《자위대》창설기념행사를 서울에서 단행한 일본반동들의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남조선인민들의 반일의식을 거세하여 조선반도재침에 유리한 발판을 닦자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그 위험성이 있다.

가증스러운것은 일본반동들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운운하며 저들의 범죄적인 놀음을 합리화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최근에는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미국, 남조선괴뢰들과 모의판을 벌려놓고 《대북군사정보공유》확대와 《협동능력검증》을 운운하며 사상 처음으로 탄도미싸일방어련합훈련까지 벌리였다. 미국의 3각군사동맹강화책동에 편승하여 기회를 보아가다가 재침의 칼을 크게 벌려보자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이 똑똑히 알아둘것이 있다.

괴뢰역적패당과 작당하여 조선반도재침야망을 그 무슨 행사놀음속에 감추어 야금야금 실현해보려는 오그랑수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년숙적 일본의 과거죄악을 기어이 결산할것이며 구천에 사무친 민족의 한을 반드시 풀고야말것이다.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야망이 숨겨진 《자위대》창설기념행사놀음으로 얻을것이란 쥐뿔도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조 택 범

력사문제를 통해 본 판이한 립장과 태도

얼마전 도이췰란드의 수도 베를린에서 력사교과서 《유럽—우리들의 력사》 제1권 발행식이 진행되였다. 교과서는 도이췰란드의 발기에 의하여 이 나라와 뽈스까가 공동으로 편찬한것이다. 중세기까지의 유럽의 력사를 취급한 이 력사교과서는 두 나라 학교들에서 다음해부터 리용하게 된다고 한다. 도이췰란드가 뿌리깊은 력사적갈등을 안고있는 뽈스까와 공동으로 력사교과서를 만든것은 주목할만 한 일이다.

발행식에 참가한 도이췰란드와 뽈스까외무상들은 《두 나라 학생들이 유럽의 력사를 같은 시각으로 볼수 있게 되였다.》고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로부터 71년이 되는 올해에 두 나라가 공동으로 력사교과서를 편찬한것은 커다란 정치적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두 나라는 2020년까지 유럽의 현대사까지 포괄하는 총 4권으로 된 력사교과서를 편찬완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도이췰란드가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력사교과서를 편찬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프랑스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이후시기의 력사를 취급한 교과서를 공동으로 만든데 이어 20세기 이전시기의 유럽력사에 대한 교과서를 편찬하고있다.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주변나라들과의 화해와 유럽의 평화를 도모하려는 도이췰란드의 긍정적인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고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되는 행동을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눈밖에 난 나라가 있다. 다름아닌 평화국가라고 자처하고있는 일본이다. 일본은 오늘까지도 과거죄악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들만을 계속 일삼으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일본에서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력사교과서외곡책동이 그것을 보여주는 보편적 실례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심히 외곡된 내용들로 일관된 력사교과서들이 뻐젓이 검정통과되여 학교들에서 리용되고있다. 력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조선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가 《일본의 령토》로 되여있는가 하면 이미 오래전에 그 허황성과 비과학성이 여지없이 폭로된 《임나일본부》설과 같은 사이비학설까지 언급되여있다. 과거성노예문제와 관련해서는 몇푼의 돈을 던져주고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기로 한 남조선과의 《합의》 등을 빗대고 《법적으로 해결되였다.》는 내용이 삽입된 대신 《성노예동원에 군이 관여했다.》는 이전의 문구는 삭제되여있다.

일본의 력사외곡은 조선민족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일본은 다른 아시아나라들에서 감행한 범죄적만행자료들도 대폭 축소, 변경시켰다. 뿐만아니라 령토문제에서는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본의것》이라고 주장하는 교과서들을 출판, 리용하여 주변나라들의 강한 반발을 야기시키고있다.

이렇듯 허무맹랑한 거짓말들로 엮어진 교과서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비뚤어진 력사관을 주입하면서 그들의 사고를 부식시키고있다. 오늘 일본의 새 세대들속에서는 《야마도민족의 우월감》과 민족배타주의가 머리를 쳐들고있으며 과거 일제의 만행사실에 대해서는 《해방자의 과실》, 《불가피한 희생》으로 인식되고있다. 보다 엄중한것은 《일본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며 《일본의 적을 복수해야 한다.》는 대결사상이 농후해지고 있는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것이 극우익으로 줄달음치고있는 현 일본정부의 의도적인 조종과 장려로 하여 초래된 현실이라는데 있다.

일본당국자들은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교과서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우익세력의 립장에 맞게 바꿈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외곡된 력사교육이 끊임없이 강행되도록 하였다. 지난 3월 일본 《아사히신붕》은 일본정부가 고등학교교과서들에 대한 검정과정에 저들의 구미에 맞게 교과서내용을 대폭 수정하도록 집요하게 강박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일본문부과학성은 출판사가 낸 검정신청본 일본사교과서에 무려 206건의 수정지시를 불어 내려보냈고 다른 교과서들에 한해서도 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퇴짜를 놓았다고 한다. 사실들은 현 일본당국자들이 력사외곡책동에 얼마나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력사외곡을 통하여 일본이 노리는 목적은 명백하다. 일본의 새 세대들속에서 복수주의감정을 야기시키고 이에 토대하여 아시아에 대한 재침야망,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자는것이다. 결국 일본의 력사외곡은 단순히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죄적인 군국주의부활책동인것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오늘날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적문제들중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의 통신이 《아베경제학》은 거의나 파산에 직면하고 《아베정치학》은 헌법위반이라는 혐의를 받고있으며 《아베군사학》은 무력증강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것들을 다 합쳐도 아마 《아베교육학》이 일본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래에 끼치게 될 해독보다 더 심하지는 않을것이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위험계선을 넘어선 현 일본정부의 력사외곡책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감의 표시인것이다. 일본이 온전한 리성을 가졌다면 마땅히 국제사회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개심과 반성의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있다.

최근 일본당국자들은 시마네현에 온갖 거짓투성이로 일관된 증거물들을 모아놓은 《다께시마(독도)력사관》을 새로 내왔는가 하면 얼마전에 진행된 참의원선거전에서 독도와 성노예관련 《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자민당의 공약으로 내들기도 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그 무슨 《증거물》과 《학술자료》까지 안받침하면서 력사의 진실을 전면부정하려는 일본의 어리석은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으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오직 진실만을 알아야 할 후대들에게 외곡된 력사를 주입하며 그들을 대결에로 부추기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야만행위, 범죄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은 눈을 뜨고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가는것은 오늘날 하나의 국제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력사외곡행위들을 비롯한 재침의 길로 계속 줄달음친다면 미래의 일본은 또다시 패망이라는 비참한 운명을 감수할수밖에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안 철 권

ㄱ-61117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말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